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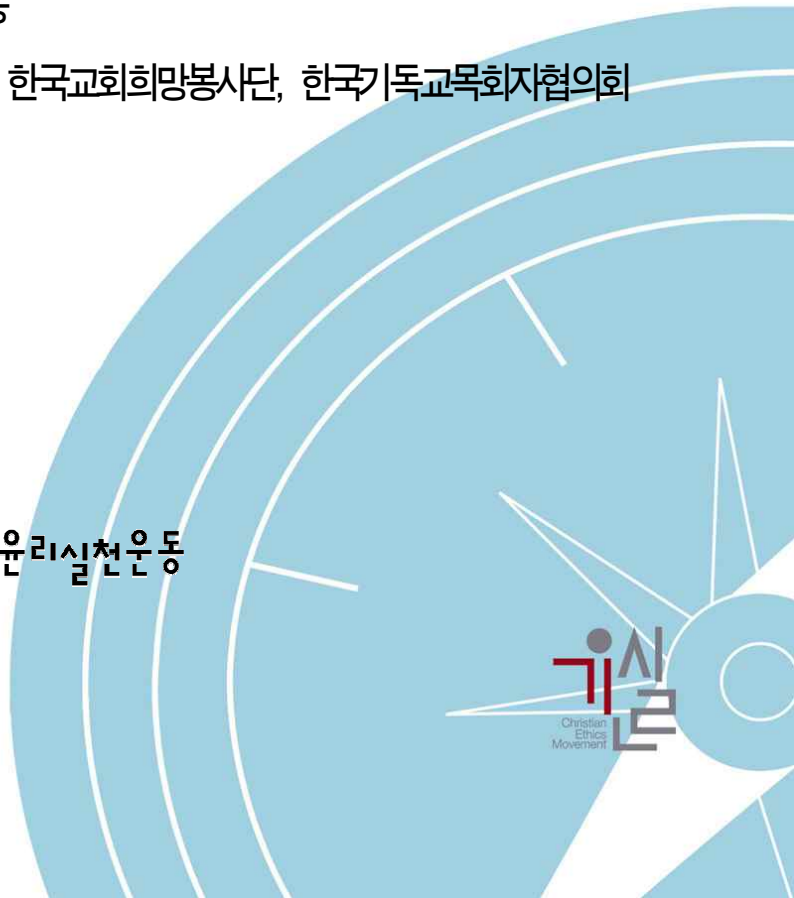


#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

2010년 12월 15일(수) 오후 2시  
청어람 5실

- 주최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협력 \_ 바른교회아카데미,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

발행일 \_ 2010년 12월 15일

발행인 \_ 우창록

편집인 \_ 조제호

발행처 \_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E-mail\_ cemk@hanmail.net

www.trusti.kr

\*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표지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내지는 고지율 20%의 그린라이트입니다.

\* 본 자료집은 기윤실 홈페이지 자료실 또는 기윤실 블로그에서 세미나 이후 파일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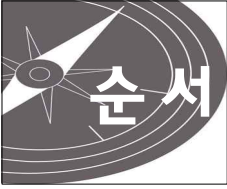
#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

2010년 12월 15일(수) 오후 2시

청어람 5실

- 주최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협력 \_ 바른교회아카데미,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사 회 :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 인사말 - 임 성 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기윤실 공동대표)

● 여론조사 결과 기초보고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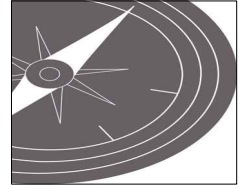
● 여론조사 질문지 28

● 기초발제 - 김 병 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본 여론조사 책임연구원) 31

● 주제발제 1 - 김 형 국 대표목사(나들목교회) 55

● 주제발제 2 - 지 용 근 대표이사(주) GH코리아 - 본 여론조사 수행기관 62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조직구성 및 진행일정

## 1. 조직구성

- 책임연구원 :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기윤실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
- 검토위원회  
신창운 기자(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대학원)
- 실무팀 : 조제호 팀장(기윤실), 선혜림 조교(서울대 경제학 석사과정)
- 공동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후원 : 바른교회아카데미,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 여론조사 기관 : GH코리아(대표 지용근)

## 2. 진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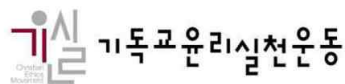
- 1차 문항검토 : 2010년 10월 20일
- 2차 문항검토 : 2010년 11월 1일
- 본 여론조사 : 2010년 11월 8일~9일
- 결과발표 세미나 : 2010년 12월 15일(수) 오후 2시 / 청어람 5실
  - 인사말 :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기윤실 공동대표)
  - 기조발제 :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본 여론조사 책임연구원)
  - 주제발제 : 김형국 대표목사(나들목교회), 지용근 대표이사(GH코리아)





# 2010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 조사결과 기초보고서



# I.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개신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측정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세 번째로 진행하는 조사 연구로서 현재의 한국 개신교회의 신뢰성 수준을 파악, 교회의 건전성 확립 및 교회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 조사 설계

조사명	2010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의 남·여
조사 기간	2010년 11월 8일 ~ 10일
조사 지역	전국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전화조사 (Telephone Survey)
표본 추출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 3.1%
표본수	1,000 명 (유효 표본)
조사 내용	<p>개신교회 신뢰 정도 및 이유</p> <p>가장 신뢰하는 기관</p> <p>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p> <p>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p> <p>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p> <p>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해야 할 사회활동</p> <p>호감이 가는 종교</p> <p>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p> <p>교회 활동 정보에 관한 출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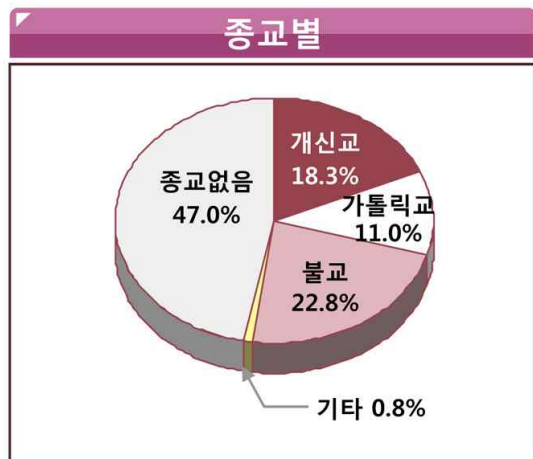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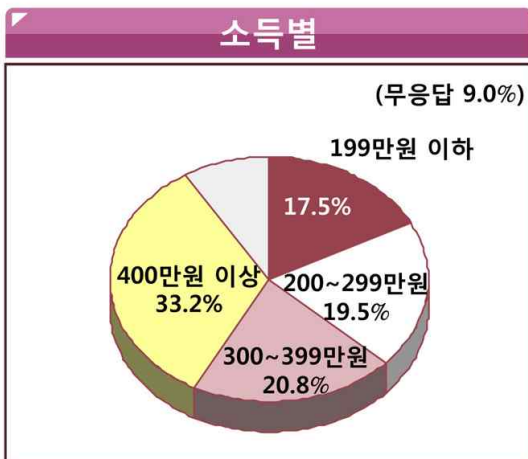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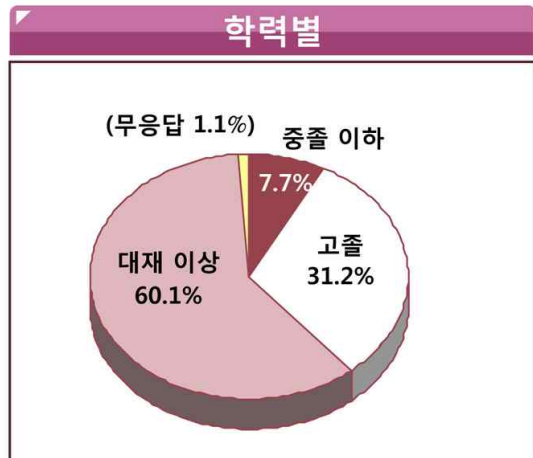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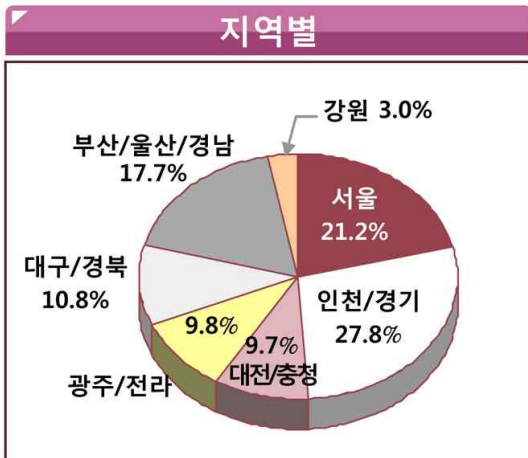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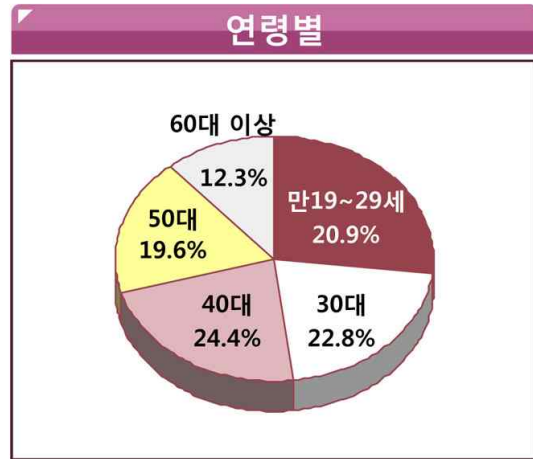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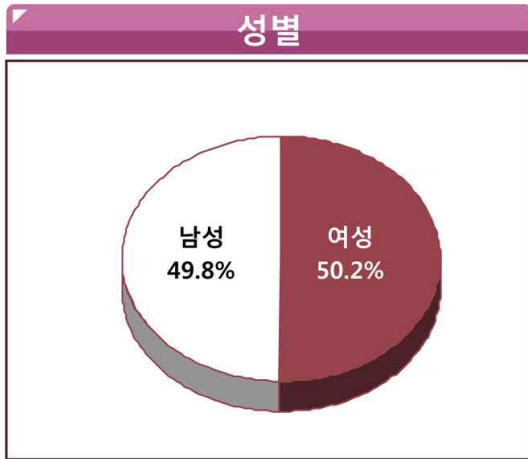


# I. 조사개요



## 3. 응답자 특성

N= 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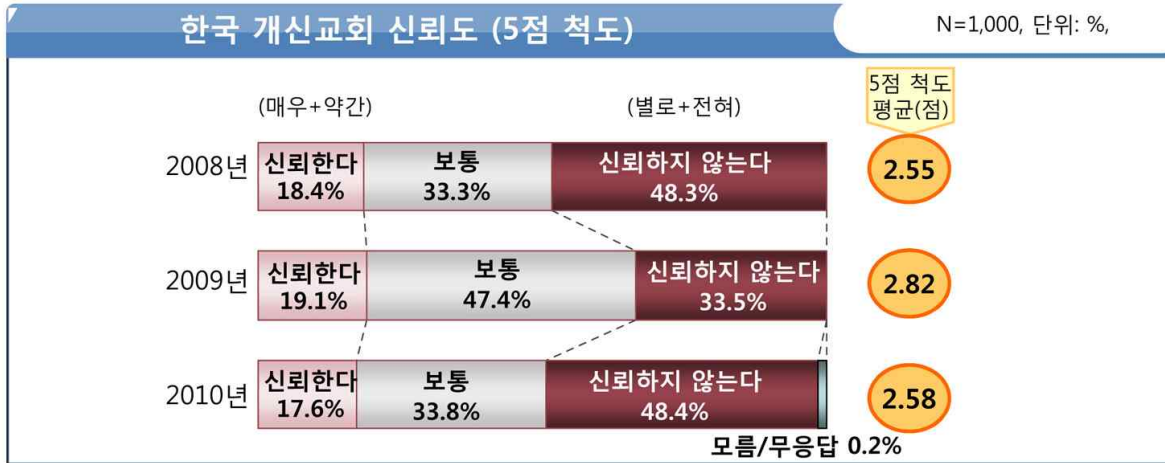
## Ⅱ. 조사 결과 분석

# 1. 한국교회 신뢰도

## 1-1. 전반적 신뢰도



- 한국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17.6%로 전년 대비 1.5% 포인트 하락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60대 이상', '수도권(서울, 인천/경기)', '학력이 낮을 수록' 한국 개신교회에 신뢰도가 높은 반면, 불교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한국 개신교회 신뢰도							
구분		사례수	신뢰한다 (매우+약간)	보통이다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전혀)	모름/ 무응답	계
	전체	(1000)	17.6	33.8	48.4	0.2	100.0
성별	남자	(498)	13.9	35.8	50.3	0.0	100.0
	여자	(502)	21.4	31.6	46.5	0.5	100.0
연령	만19~29세	(209)	11.5	36.6	51.6	0.3	100.0
	30대	(228)	15.6	31.6	52.8	0.0	100.0
	40대	(244)	19.6	36.4	43.3	0.7	100.0
	50대	(196)	16.9	28.8	54.3	0.0	100.0
	60대 이상	(123)	29.0	35.7	35.3	0.0	100.0
지역	서울	(212)	20.4	38.5	41.1	0.0	100.0
	인천/경기	(278)	20.8	37.3	41.9	0.0	100.0
	대전/충청	(97)	16.1	41.4	40.0	2.5	100.0
	광주/전라	(98)	16.0	24.6	59.4	0.0	100.0
	대구/경북	(108)	13.5	35.7	50.8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7)	15.0	22.0	63.0	0.0	100.0
	강원	(30)	9.4	35.1	55.5	0.0	100.0
학력	중졸이하	(77)	31.1	31.1	37.8	0.0	100.0
	고졸	(312)	19.0	34.6	45.9	0.5	100.0
	대재이상	(601)	14.7	33.7	51.5	0.1	100.0
	모름/무응답	(11)	43.2	39.7	17.1	0.0	100.0
종교	개신교	(183)	59.0	23.8	16.8	0.4	100.0
	가톨릭교	(110)	10.7	45.3	44.0	0.0	100.0
	불교	(228)	8.8	30.2	60.3	0.7	100.0
	기타	(8)	0.0	48.1	51.9	0.0	100.0
	종교 없음	(470)	7.6	36.5	55.9	0.0	100.0

# 1. 한국교회 신뢰도



## 1-2. 전반적 신뢰도 비교 분석

- 2008년 Data 기준으로 지난 2년간 한국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를 계층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블루칼라층, 남자 그리고 개신교층에서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 개신교회 신뢰도( 매우 + 약간)						
구분		2008년(A)		2010년(B)		증감(B-A)
		사례수	신뢰도	사례수	신뢰도	
	전체	(1,000)	18.5	(1000)	17.6	-0.9
성별	남자	(481)	18.8	(498)	13.9	-4.9
	여자	(519)	18.1	(502)	21.4	3.3
연령	만19~29세	(219)	13.4	(209)	11.5	-1.9
	30대	(236)	15.5	(228)	15.6	0.1
	40대	(229)	15.5	(244)	19.6	4.1
	50대	(138)	26.2	(196)	16.9	-9.3
	60대 이상	(178)	26.4	(123)	29.0	2.6
지역	서울	(211)	20.3	(212)	20.4	0.1
	인천/경기	(249)	21.9	(278)	20.8	-1.1
	대전/충청	(95)	18.0	(97)	16.1	-1.9
	광주/전라	(104)	16.8	(98)	16.0	-0.8
	대구/경북	(119)	16.5	(108)	13.5	-3.0
	부산/울산/경남 강원/(08년 제주)	(177) (46)	15.5 12.2	(177) (30)	15.0 9.4	-0.5 -2.8
직업	농/임/어업	(37)	33.3	(17)	22.4	-10.9
	자영업	(170)	16.3	(221)	16.5	0.2
	블루 칼라	(74)	21.6	(106)	11.0	-10.6
	화이트 칼라	(349)	13.9	(294)	17.6	3.7
	가정주부	(209)	24.4	(228)	24.3	-0.1
	학생	(76)	17.5	(73)	8.0	-9.5
	무직/퇴직/기타 모름/무응답	(85) -	18.6 -	(56) (4)	16.7 40.1	-1.9 -
월소득	199만원 이하	(292)	23.0	(175)	21.6	-1.4
	200-299만원	(254)	18.9	(195)	16.6	-2.3
	300-399만원	(225)	16.2	(208)	18.6	2.4
	400만원 이상	(208)	14.1	(332)	14.7	0.6
	모름/무응답	(21)	16.9	(90)	20.5	3.6
학력	중졸 이하	(140)	24.2	(77)	31.1	6.9
	고졸	(295)	19.2	(312)	19.0	-0.2
	대재 이상	(561)	16.7	(601)	14.7	-2.0
종교	개신교	(183)	65.6	(183)	59.0	-6.6
	가톨릭교	(109)	8.9	(110)	10.7	1.8
	불교	(228)	10.1	(228)	8.8	-1.3
	기타	(2)	8.2	(8)	0.0	-8.2
	종교 없음	(469)	6.6	(470)	7.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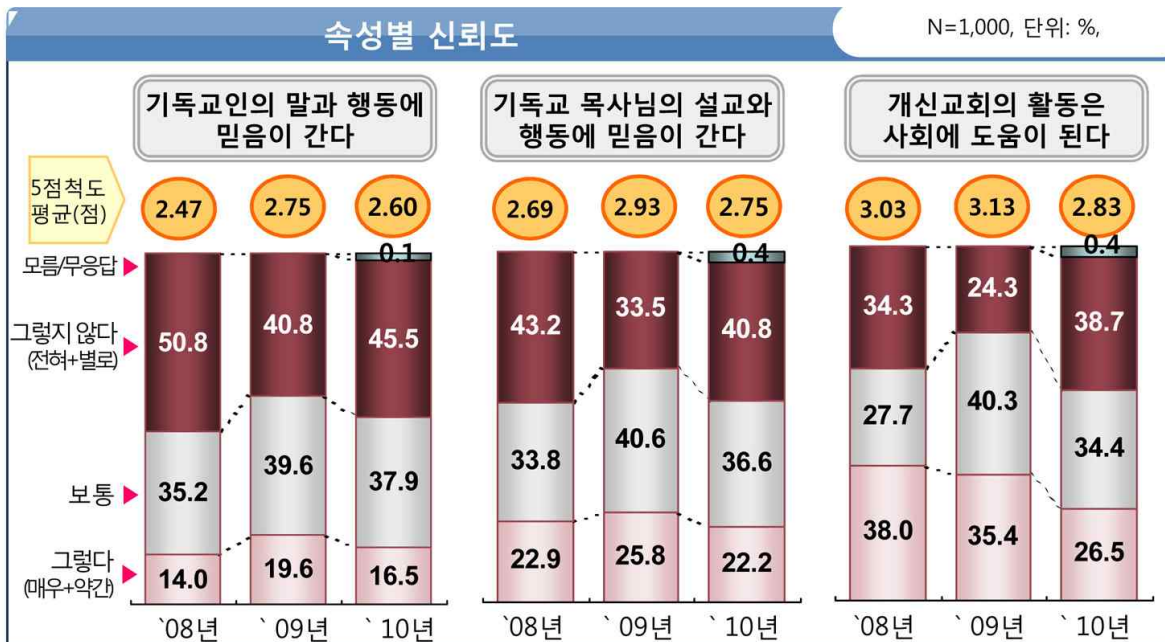


# 1. 한국교회 신뢰도

## 1-3. 속성별 신뢰도



- 개신교회에 대한 각 속성별 신뢰도를 보면, '개신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26.5%)' >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22.2%)' >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16.5%)' 순으로 나타남.
- 지난 조사 대비 속성별 신뢰도는 모두 감소하였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전반적으로 '여성', '60대 이상', '개신교인'에게서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속성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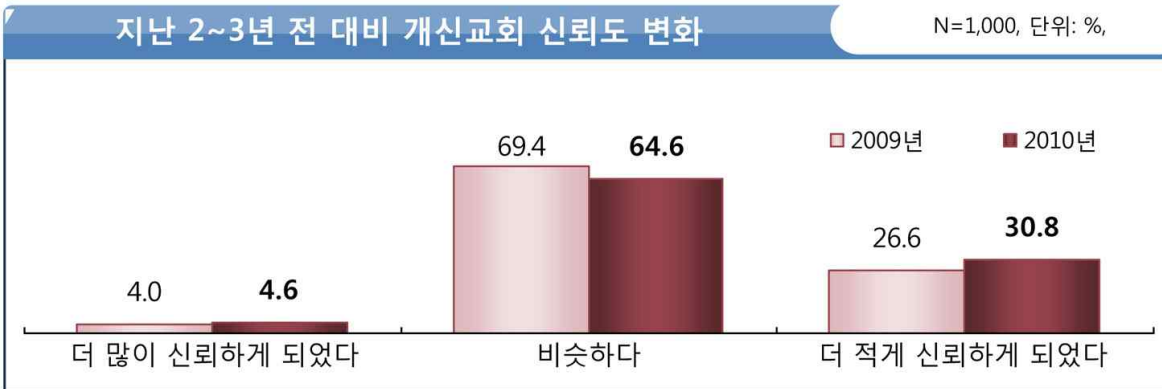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		개신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5점 척도(점)	그렇다	5점 척도(점)	그렇다	5점 척도(점)
전체	(1000)	16.5	2.6	22.2	2.7	26.5	2.8
성별	남자 (498)	14.5	2.5	20.6	2.6	24.2	2.8
	여자 (502)	18.5	2.7	23.9	2.8	28.8	2.9
연령	만19~29세 (209)	12.3	2.5	17.3	2.6	17.1	2.6
	30대 (228)	14.7	2.5	20.7	2.6	24.1	2.7
	40대 (244)	14.4	2.6	24.9	2.9	30.5	2.9
	50대 (196)	18.8	2.6	22.5	2.7	27.3	2.8
	60대 이상 (123)	27.7	3.0	27.6	3.1	37.5	3.1
종교	개신교 (183)	50.5	3.6	66.7	3.9	65.1	3.9
	가톨릭교 (110)	17.3	2.6	18.6	2.6	16.0	2.7
	불교 (228)	10.3	2.5	12.5	2.6	18.4	2.6
	기타 (8)	0.0	2.0	13.2	2.6	10.9	2.7
	종교 없음 (470)	6.3	2.3	10.6	2.4	18.0	2.6

# 1. 한국교회 신뢰도



## 1-4. 지난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 지난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은 결과, '비슷하다(64.6%)'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4.6%)'는 응답보다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30.8%)'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2009년 조사 대비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의견은 4.2% 포인트 증가한 반면,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0.6% 포인트 증가에 그쳤고 '비슷하다'는 의견 또한 4.8% 포인트 감소해 실질적으로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의 신뢰도에 감소했다는 의견이 지난 조사 대비 다소 증가함.



구분	사례수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	비슷하다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	계
전체	(1000)	4.6	64.6	30.8	100.0
성별	남자 (498)	4.7	63.8	31.5	100.0
	여자 (502)	4.5	65.4	30.0	100.0
연령	만19~29세 (209)	3.5	71.3	25.2	100.0
	30대 (228)	3.0	60.8	36.2	100.0
	40대 (244)	5.1	65.8	29.1	100.0
	50대 (196)	3.7	61.8	34.5	100.0
	60대 이상 (123)	10.1	62.5	27.4	100.0
지역	서울 (212)	6.9	61.7	31.4	100.0
	인천/경기 (278)	5.1	66.9	28.0	100.0
	대전/충청 (97)	3.8	71.4	24.8	100.0
	광주/전라 (98)	3.1	52.9	44.1	100.0
	대구/경북 (108)	3.5	70.3	26.2	100.0
	부산/울산/경남 (177)	3.1	67.3	29.6	100.0
강원 (30)	4.7	64.6	30.7	100.0	
종교	개신교 (183)	16.9	64.4	18.8	100.0
	가톨릭교 (110)	2.7	65.3	32.0	100.0
	불교 (228)	1.5	64.0	34.6	100.0
	기타 (8)	0.0	42.3	57.7	100.0
	종교 없음 (470)	1.9	65.3	32.8	100.0

# 1. 한국교회 신뢰도

## 1-5. 지난 2-3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이유

- 신뢰도가 증가한 이유로 '(교인이라) 신앙심이 깊어져서' 응답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해서(23.8)' 등이 주된 신뢰 증가 이유로 응답됨.
- 반면, 신뢰도가 감소한 이유로 '언론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접해서(18.6%)',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15.6%)', '교인들의 비윤리적 행동 때문(14.9%)' 등이 주된 신뢰도 감소 이유로 응답됨.

### 2010년 신규문항(주관식)

#### 지난 2-3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이유

##### 신뢰도 증가 이유 (N=46, 복수응답, 단위: %)

- (교인이라) 신앙심이 깊어져서 35.1%
-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23.8%
- 교인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봐서 5.6%
- 목사님의 행동이 믿음을 주어서 5.2%
- 종교로 인해 생활이 모범적으로 바뀐 4.6%
- 교인들이 긍정적 사고를 갖고 있어서 3.9%
- 정직/청렴한 모습을 보여줘서 3.5%
- 사회 기여도가 높아서 3.0%
-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3.0%
- 교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2.0%
- 교인들이 많이 분포된 것 같아서 2.0%
-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1.5%
- 언행일치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1.5%
- 재정사용이 투명해 진 것 같아서 1.5%

##### 신뢰도 감소 이유 (N=336, 복수응답, 단위: %)

- 언론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접해서 18.6%
-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15.6%
- 교인들의 비윤리적 행동 때문에 14.9%
- 타종교에 대해 편파적으로 생각해서 7.7%
- 교회의 전도 유치활동이 심해서 6.4%
- 목사/교인(단체장)이 믿음/신뢰를 못줘서 6.3%
- 돈에 집착해 이익만 챙기기 때문 5.5%
- 자기중심적/이기적이라서 5.0%
- 정치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4.9%
- 성경말씀을 많이 지키지 않아서 4.8%
- 재정사용이 투명하지 않아서 4.2%
- 교인들이 자기들 교회 안으로만 파고 들어서 3.2%
- 사회 공헌도가 낮음(봉사 활동이 적음) 1.9%
- 과격한 행동을 보여서(강압적) 1.1%
- 교회가 너무 많아서 0.8%
- 교회성장 대형화 때문에 0.8%
- 교인의 가정보다 종교에 더 몰두해서 0.5%
- 형식적이어서 0.3%
- 교인이 교회를 자주 옮겨서 0.2%
- 사랑이 부족한 모습 때문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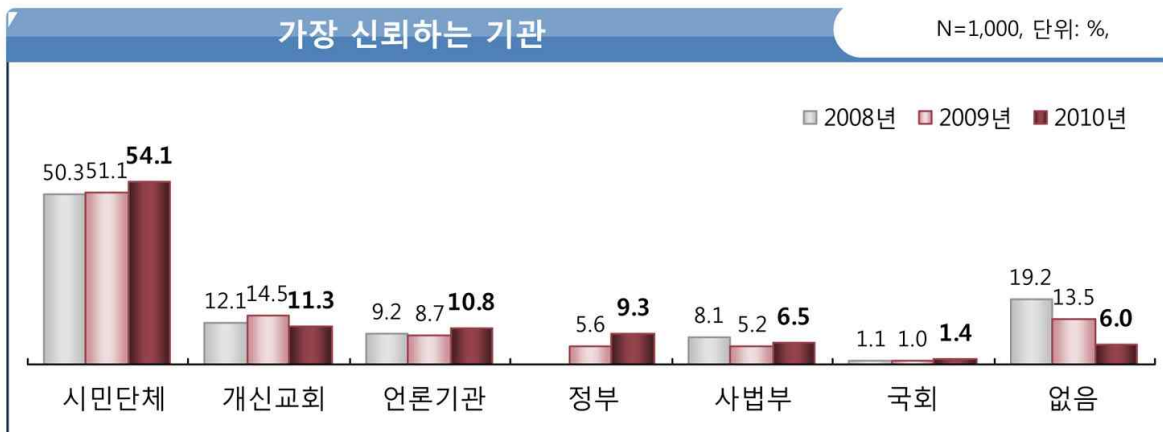


## 2. 신뢰 기관

### 2-1. 가장 신뢰하는 기관 평가



-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시민단체(54.1%)' > '개신교회(11.3%)' > '언론기관(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3년 연속 약간씩 증가하였으며, 개신교회는 2009년에 상승했다가 올해는 2008년 보다 낮게 나타남.
- 개신교인들 중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하는 비율이 47.5%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침.



구분	사례수	시민단체	개신교회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국회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54.1	11.3	10.8	9.3	6.5	1.4	6.0	0.6	100.0
성별	남자 (498)	50.6	8.5	13.7	12.8	7.9	0.8	5.6	0.0	100.0
	여자 (502)	57.6	14.1	8.0	5.8	5.2	1.9	6.5	1.0	100.0
연령	만19~29세 (209)	54.0	6.0	13.4	8.9	8.7	2.4	5.9	0.8	100.0
	30대 (228)	63.4	9.3	9.0	7.0	5.1	0.7	5.0	0.4	100.0
	40대 (244)	57.7	13.3	9.7	5.9	5.8	0.7	6.9	0.0	100.0
	50대 (196)	49.0	15.6	9.2	10.8	7.4	1.3	6.5	0.0	100.0
60대 이상 (123)	38.0	13.1	14.7	18.6	5.6	2.1	5.7	2.1	100.0	
학력	중졸이하 (77)	40.9	17.5	15.9	7.8	7.8	3.4	3.4	3.4	100.0
	고졸 (312)	51.7	13.2	12.1	8.9	5.2	1.1	7.3	0.6	100.0
	대재이상 (601)	57.2	9.4	9.7	9.7	7.2	1.0	5.7	0.1	100.0
	모름/무응답 (11)	46.9	20.0	0.0	8.6	0.0	15.9	8.6	0.0	100.0
종교	개신교 (183)	30.3	47.5	6.5	6.9	4.6	1.1	2.7	0.4	100.0
	가톨릭교 (110)	65.3	1.3	9.3	2.7	10.7	0.0	10.7	0.0	100.0
	불교 (228)	61.8	4.4	7.4	12.5	4.4	1.5	7.4	0.7	100.0
	기타 (8)	68.6	0.0	0.0	10.9	20.5	0.0	0.0	0.0	100.0
	종교 없음 (470)	56.8	3.1	14.8	10.2	7.1	1.7	5.8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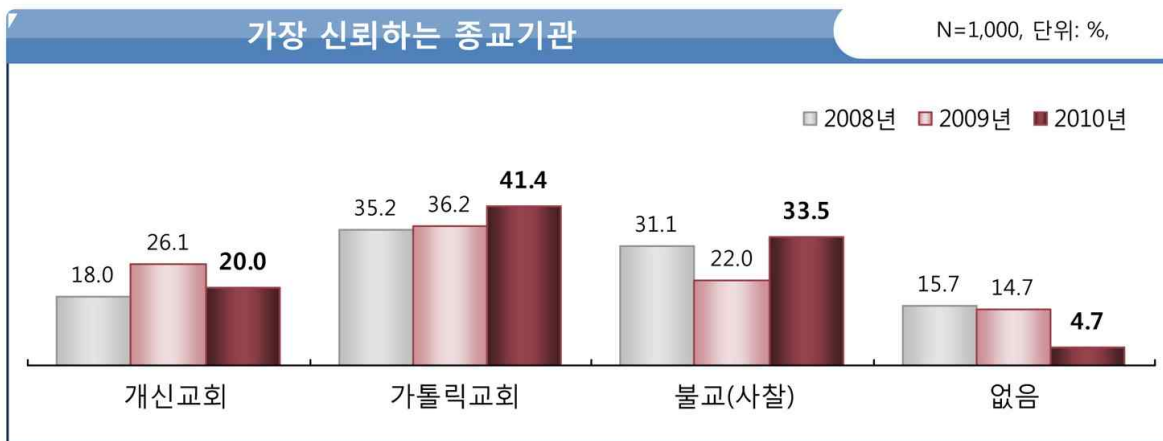


## 2. 신뢰 기관

### 2-2.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평가



-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개신교회(20.0%)'는 '가톨릭교회(41.4%)', '불교(사찰)(33.5%)'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남.
- '가톨릭 교회'에 대한 평가는 3년째 상승세를 보였으며, 전년도 2위였던 '개신교회'는 '불교(사찰)'에 이어 3위로 내려 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 '개신교회'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가톨릭교회'의 경우 '서울' 지역, 소득 400만원 이상 계층에서, '불교(사찰)'의 경우 '60대 이상' 소득 '199만원 이하'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무종교자의 '개신교회' 응답은 11.7%에 그쳐 '가톨릭교회(44.9%)', '불교(사찰)(34.9%)' 대비 많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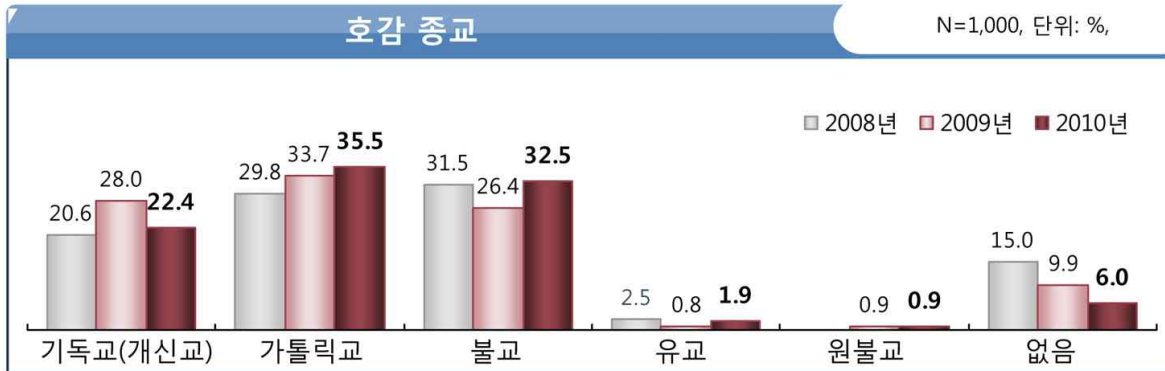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불교(사찰)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20.0	41.4	33.5	4.7	0.4	100.0	
성별	남자	(498)	17.6	44.0	32.0	6.0	0.3	100.0
	여자	(502)	22.3	38.8	35.0	3.3	0.5	100.0
연령	만19~29세	(209)	22.3	41.7	29.6	6.0	0.4	100.0
	30대	(228)	20.9	39.5	32.3	7.3	0.0	100.0
	40대	(244)	20.8	44.4	30.5	3.9	0.4	100.0
	50대	(196)	16.6	45.6	34.4	2.6	0.9	100.0
	60대 이상	(123)	18.0	31.8	47.3	2.2	0.7	100.0
소득	199만원 이하	(175)	23.1	25.2	47.6	3.5	0.5	100.0
	200~299만원	(195)	21.4	40.8	34.3	2.2	1.3	100.0
	300~399만원	(208)	22.4	38.6	34.6	4.4	0.0	100.0
	400만원 이상	(332)	15.6	52.6	27.2	4.5	0.0	100.0
	모름/무응답	(90)	21.2	39.3	25.4	13.1	1.0	100.0
종교	개신교	(183)	77.0	18.8	2.7	1.5	0.0	100.0
	가톨릭교	(110)	0.0	100.0	0.0	0.0	0.0	100.0
	불교	(228)	0.7	25.7	69.9	2.9	0.7	100.0
	기타	(8)	20.5	0.0	79.5	0.0	0.0	100.0
	종교 없음	(470)	11.7	44.9	34.9	7.9	0.6	100.0

### 3. 종교 관련 인식

#### 3-1. 호감 종교



- 종교를 믿는 것과 관계없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에 '기독교(개신교)'는 '가톨릭교(35.5%)'와 '불교(32.5%)'에 이어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남.
- 종교 호감도에서 '가톨릭교'와 '불교'는 2009년 대비 증가한 반면 '기독교(개신교)' 감소함.
- 무종교인의 경우 '기독교(개신교)' 호감도가 14.4%로 '불교/가톨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독교(개신교)' 종교 호감도는 '여자', '20~30대', '수도권 및 대전/충청' 지역에서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가톨릭교'의 경우 '서울', '400만원 이상' 계층에서 '불교'의 경우 '60대 이상', '경상도' 지역, '199만원 이하' 계층에서 종교 호감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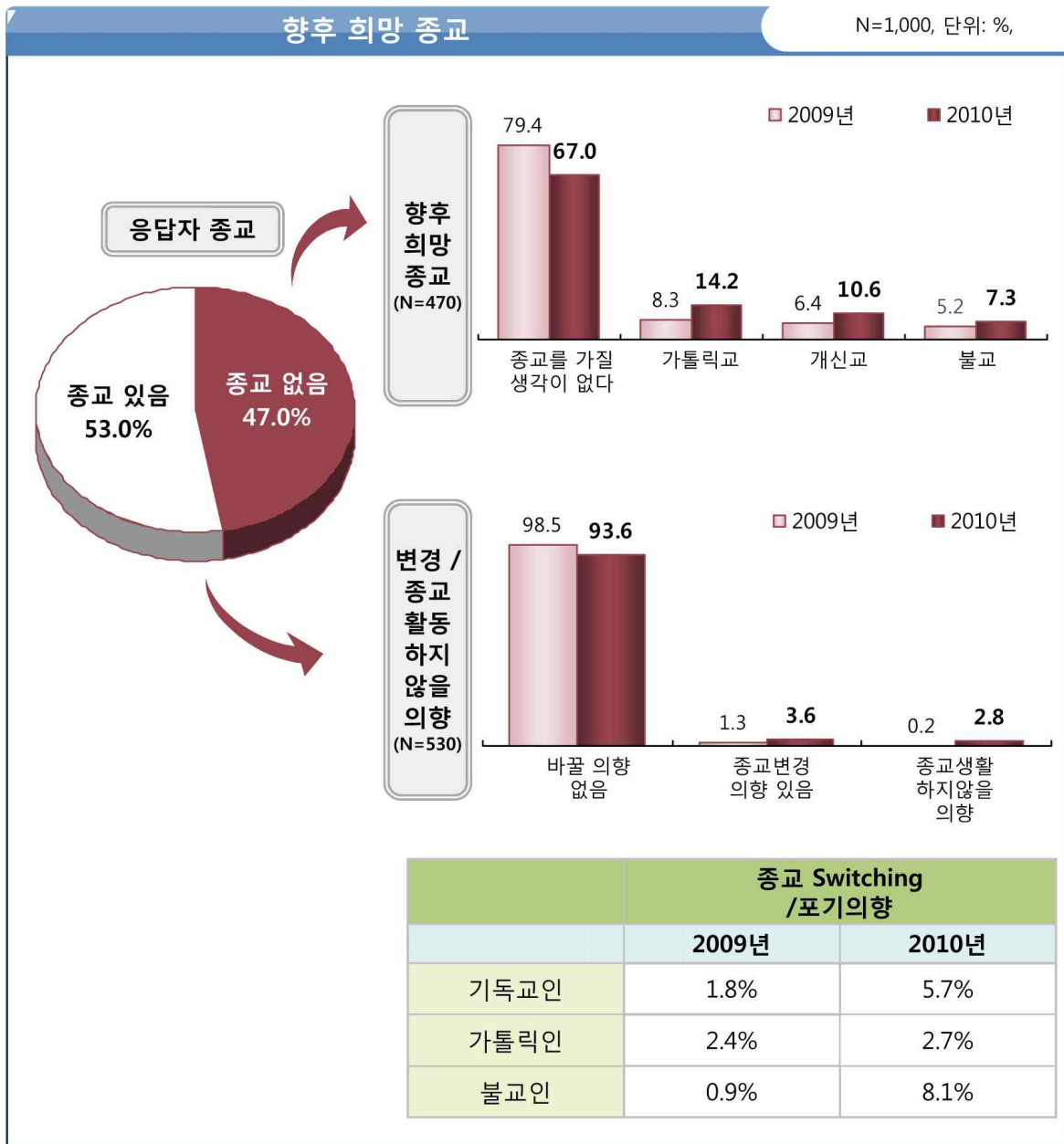
		호감 종교									
구분		사례수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교	불교	유교	원불교	기타	없음	모름/ 무응답	계
	전체	(1000)	22.4	35.5	32.5	1.9	0.9	0.5	6.0	0.3	100.0
성별	남자	(498)	20.2	35.6	34.0	2.2	1.0	0.1	6.5	0.2	100.0
	여자	(502)	24.6	35.3	31.0	1.5	0.8	0.9	5.4	0.5	100.0
연령	만19~29세	(209)	23.6	38.1	29.8	1.7	0.0	0.0	6.3	0.4	100.0
	30대	(228)	26.7	36.9	26.3	0.7	1.1	0.0	8.3	0.0	100.0
	40대	(244)	19.3	35.4	34.7	2.4	1.3	1.1	5.8	0.0	100.0
	50대	(196)	20.5	36.8	34.7	1.7	0.7	0.4	4.0	1.2	100.0
	60대 이상	(123)	22.0	26.4	41.0	3.4	1.5	1.4	4.3	0.0	100.0
지역	서울	(212)	24.2	45.4	23.9	1.3	0.4	0.8	3.6	0.3	100.0
	인천/경기	(278)	25.7	38.0	28.6	1.7	0.9	0.3	4.9	0.0	100.0
	대전/충청	(97)	29.1	34.2	27.7	2.7	1.0	0.0	4.4	0.9	100.0
	광주/전라	(98)	20.0	32.9	29.5	1.7	2.6	1.8	11.5	0.0	100.0
	대구/경북	(108)	14.7	33.5	37.8	1.6	0.0	0.0	12.5	0.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	(177) (30)	16.9 26.2	23.9 30.5	49.8 34.3	2.9 0.0	1.2 0.0	0.5 0.0	3.8 9.0	0.9 0.0	100.0 100.0
소득	199만원 이하	(175)	25.4	22.9	40.6	1.9	1.0	0.0	8.1	0.0	100.0
	200~299만원	(195)	23.4	35.1	32.1	2.7	1.3	0.9	3.6	0.9	100.0
	300~399만원	(208)	22.2	35.7	35.3	2.4	1.1	0.8	2.5	0.0	100.0
	400만원 이상	(332)	18.3	43.7	29.4	1.0	0.7	0.5	6.2	0.2	100.0
	모름/무응답	(90)	30.5	29.8	22.8	1.9	0.0	0.0	14.1	1.0	100.0
종교	개신교	(183)	75.5	12.3	5.7	0.8	1.1	0.4	3.8	0.4	100.0
	가톨릭교	(110)	1.3	86.7	9.3	0.0	1.3	0.0	1.3	0.0	100.0
	불교	(228)	7.4	26.5	58.1	5.1	0.0	0.0	2.2	0.7	100.0
	기타	(8)	0.0	0.0	26.3	0.0	32.7	41.0	0.0	0.0	100.0
	종교 없음	(470)	14.4	37.6	36.1	1.2	0.6	0.2	9.8	0.2	100.0

### 3. 종교 관련 인식

#### 3-2. 향후 희망 종교



- '무종교자(47.0%)' 중 67.0%는 향후에도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으며, 가질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가톨릭교가 2009년에 이어 1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10.6%)' > '불교(7.3%)' 순으로 나타남.
- '유종교자' 530명 중 종교 스위칭(Switching) 의향을 묻은 결과, 93.6%가 바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3개 종교 중 불교인의 종교 스위칭/포기 의향율이 전년대비 가장 높게 상승함.





### 3. 종교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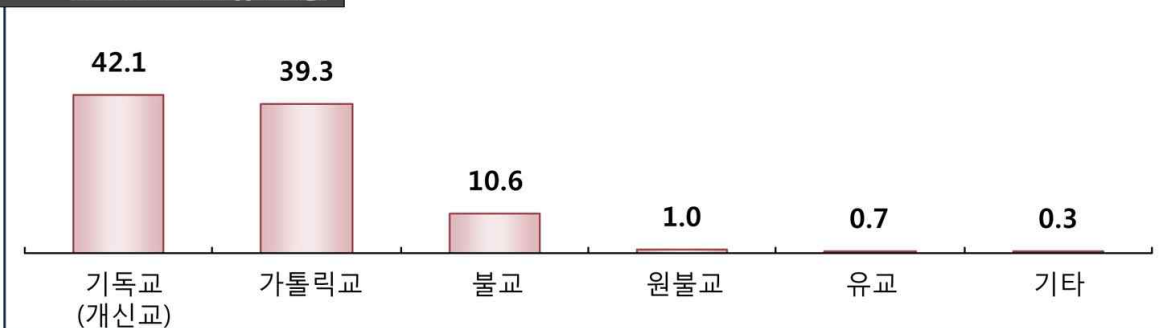
#### 3-3. 사회 봉사활동 적극수행 종교

- 사회 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를 질문한 결과, '기독교(개신교)'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톨릭교(39.3%)' > '불교(10.6%)'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개신교(기독교)' 응답은 '20대~30대'에서, '가톨릭교' 응답은 '40~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무종교자'와 '불신자'들도 타 종교보다 '개신교(기독교)'의 사회봉사활동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 봉사활동 적극수행 종교

N=1,000, 단위: %

#### 2010년 신규문항



사회 봉사활동 적극수행 종교												
구분		사례수	기독교(개신교)	가톨릭교	불교	원불교	유교	기타	모두 비슷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42.1	39.3	10.6	1.0	0.7	0.3	0.5	2.7	2.8	100.0
성별	남자	(498)	41.7	35.4	12.3	1.3	1.4	0.2	0.5	3.4	3.8	100.0
	여자	(502)	42.4	43.1	9.0	0.7	0.0	0.3	0.5	1.9	2.0	100.0
연령	만19~29세	(209)	46.7	33.8	10.3	0.4	0.0	0.4	0.4	3.7	4.3	100.0
	30대	(228)	46.6	34.8	8.2	1.3	0.4	0.0	0.3	2.7	5.6	100.0
	40대	(244)	38.2	46.1	7.9	1.4	0.4	0.7	1.4	3.2	0.7	100.0
	50대	(196)	36.7	43.8	16.8	0.5	0.0	0.0	0.0	0.8	1.4	100.0
	60대 이상	(123)	42.1	36.0	11.3	1.5	4.3	0.0	0.0	2.7	2.1	100.0
지역	서울	(212)	47.8	42.2	7.9	0.9	0.4	0.0	0.0	0.9	0.0	100.0
	인천/경기	(278)	44.3	37.9	13.6	0.5	0.0	0.0	0.3	0.3	3.0	100.0
	대전/충청	(97)	34.1	41.3	9.8	2.8	0.0	0.0	4.2	5.0	2.7	100.0
	광주/전라	(98)	36.4	36.9	9.5	4.2	0.0	1.8	0.0	6.9	4.5	100.0
	대구/경북	(108)	34.7	43.8	8.9	0.0	1.0	0.0	0.0	9.9	1.7	100.0
	부산/울산/경남	(177)	44.3	33.5	11.3	0.0	2.9	0.5	0.0	1.0	6.5	100.0
	강원	(30)	38.5	50.0	11.6	0.0	0.0	0.0	0.0	0.0	0.0	100.0
종교	개신교	(183)	72.8	22.6	2.3	0.8	0.4	0.0	0.4	0.8	0.0	100.0
	가톨릭교	(110)	9.3	84.0	1.3	1.3	0.0	0.0	0.0	2.7	1.3	100.0
	불교	(228)	38.2	31.6	22.8	0.0	0.7	0.0	1.5	0.7	4.4	100.0
	기타	(8)	10.9	33.7	10.9	10.9	13.2	20.5	0.0	0.0	0.0	100.0
	종교 없음	(470)	40.1	39.2	10.2	1.3	0.8	0.2	0.2	4.4	3.6	100.0

### 3. 종교 관련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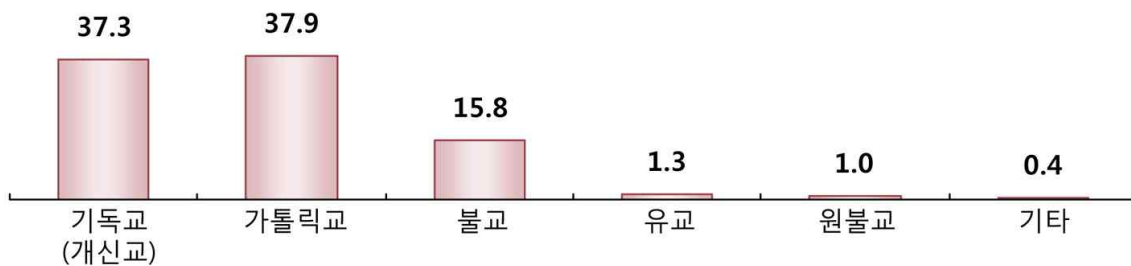
#### 3-4. 우리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종교 봉사활동

- 우리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종교의 봉사활동에 대해, '기독교(개신교)(37.3%)'와 '가톨릭교(37.9%)'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독교(개신교)'의 경우 '20~30대', '서울' 지역, 월소득 '199만원 이하' 계층에서, '가톨릭교'의 경우 '40대', 월소득 '400만원 이상' 계층에서 응답이 높게 나타남.

우리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종교 봉사활동

N=1,000, 단위: %

##### 2010년 신규문항



우리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종교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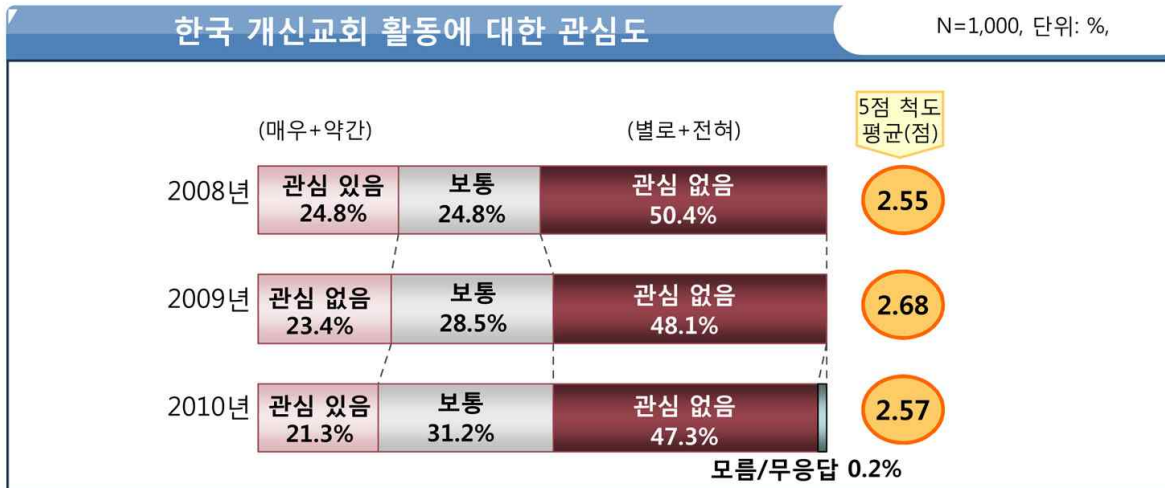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기독교(개신교)	가톨릭교	불교	유교	원불교	기타	모두 비슷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37.3	37.9	15.8	1.3	1.0	0.4	0.6	3.0	2.7	100.0
성별	남자 (498)	37.2	34.6	18.0	2.0	1.4	0.4	0.5	3.6	2.5	100.0
	여자 (502)	37.4	41.1	13.7	0.7	0.5	0.3	0.7	2.5	3.1	100.0
연령	만19~29세 (209)	41.5	35.0	15.7	1.7	0.4	0.4	0.4	3.2	1.6	100.0
	30대 (228)	42.2	34.9	12.4	1.2	1.5	0.0	0.6	5.0	2.2	100.0
	40대 (244)	33.1	42.6	12.5	1.5	1.1	1.1	1.4	3.2	3.6	100.0
	50대 (196)	33.3	37.7	24.2	0.9	0.5	0.0	0.0	1.7	1.8	100.0
	60대 이상 (123)	35.9	39.1	15.4	1.6	1.5	0.0	0.0	0.7	5.7	100.0
지역	서울 (212)	44.1	42.2	10.3	0.4	0.9	0.0	0.0	1.3	0.9	100.0
	인천/경기 (278)	37.1	39.7	16.5	1.6	0.6	0.3	0.3	0.8	3.0	100.0
	대전/충청 (97)	30.8	40.3	10.0	0.9	1.9	0.0	4.9	6.1	5.1	100.0
	광주/전라 (98)	30.0	41.4	14.7	0.9	3.5	1.8	0.0	6.1	1.6	100.0
	대구/경북 (108)	34.0	31.6	21.8	1.9	0.0	0.0	0.0	9.9	0.8	100.0
	부산/울산/경남 (177)	39.7	30.8	19.7	2.5	0.5	0.5	0.0	1.5	4.8	100.0
강원 (30)	33.2	35.3	26.1	0.0	0.0	0.0	0.0	0.0	5.3	100.0	
소득	199만원 이하 (175)	45.4	28.3	17.8	2.1	1.0	0.5	1.0	1.0	2.9	100.0
	200~299만원 (195)	39.0	39.3	15.0	0.5	1.4	0.0	1.2	1.4	2.2	100.0
	300~399만원 (208)	36.8	39.7	16.9	1.7	0.8	0.0	0.0	2.5	1.6	100.0
	400만원 이상 (332)	32.5	44.8	15.0	1.1	0.8	0.5	0.5	2.9	1.8	100.0
	모름/무응답 (90)	36.6	23.5	13.8	2.0	1.0	1.0	0.0	12.1	10.0	100.0
종교	개신교 (183)	72.8	19.5	3.4	0.0	0.4	0.0	0.8	1.1	1.9	100.0
	가톨릭교 (110)	10.7	84.0	1.3	0.0	0.0	0.0	0.0	2.7	1.3	100.0
	불교 (228)	26.5	31.6	34.6	1.5	0.0	0.0	1.5	0.0	4.4	100.0
	기타 (8)	24.0	20.5	10.9	13.2	10.9	20.5	0.0	0.0	0.0	100.0
	종교 없음 (470)	35.1	37.6	15.0	1.9	1.7	0.4	0.2	5.4	2.7	100.0

### 3. 종교 관련 인식

#### 3-5. 한국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도



- 2010년 한국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는 21.3%로 나타남.
- 개신교회활동 관심도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20대'와 '대구/경북' 지역에서 관심도가 떨어짐.



**한국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도**

구분		사례수	관심 있다 (매우+약간)	보통이다	관심 없다 (별로+전혀)	모름/무응답	개
전체		(1000)	21.3	31.2	47.3	0.2	100.0
성별	남자	(498)	20.0	32.5	47.5	0.0	100.0
	여자	(502)	22.6	29.9	47.1	0.3	100.0
연령	만19~29세	(209)	12.6	33.3	54.1	0.0	100.0
	30대	(228)	19.3	31.9	48.8	0.0	100.0
	40대	(244)	24.3	33.0	42.7	0.0	100.0
	50대	(196)	26.8	28.0	45.2	0.0	100.0
	60대 이상	(123)	25.0	28.0	45.6	1.4	100.0
지역	서울	(212)	23.5	31.1	45.4	0.0	100.0
	인천/경기	(278)	27.1	32.2	40.0	0.6	100.0
	대전/충청	(97)	19.8	32.1	48.1	0.0	100.0
	광주/전라	(98)	17.0	30.0	52.9	0.0	100.0
	대구/경북	(108)	14.3	23.7	62.0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7)	15.3	33.1	51.7	0.0	100.0
	강원	(30)	31.6	39.5	28.9	0.0	100.0
종교	개신교	(183)	62.8	27.2	10.0	0.0	100.0
	가톨릭교	(110)	24.0	38.7	37.3	0.0	100.0
	불교	(228)	8.8	35.3	55.1	0.7	100.0
	기타	(8)	0.0	24.0	76.0	0.0	100.0
	종교 없음	(470)	10.9	29.2	59.9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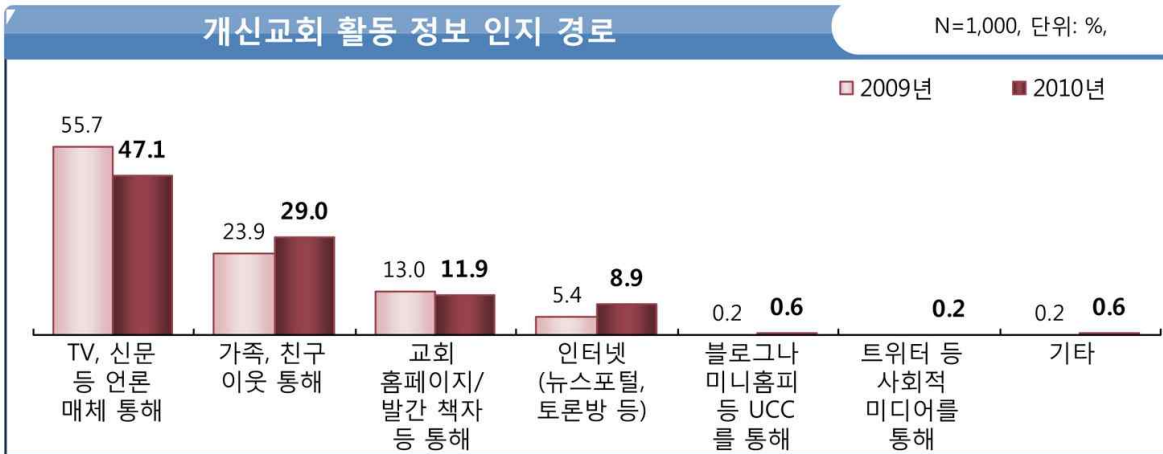


### 3. 종교 관련 인식



#### 3-6. 개신교회 활동 정보 인지 경로

- 교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경로로 'TV, 신문 등 언론 매체'가 2009년 조사와 같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친구나 이웃을 통해(29.0%)' > '교회 홈페이지/발간하는 책자 등을 통해(11.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독교(개신교)에 대한 호감/관심이 낮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TV,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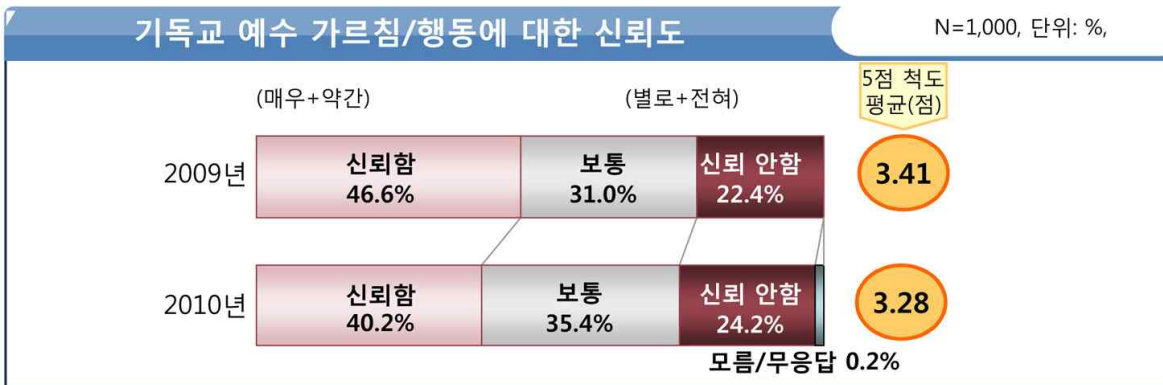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TV,신문 등 언론 매체 통해	가족, 친구 이웃 통해	교회 홈페이지/발간 책자 등 통해	인터넷 (뉴스포털, 토론방 등)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UCC를 통해	트위터 등 사회적 미디어를 통해	기타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47.1	29.0	11.9	8.9	0.6	0.2	0.6	1.0	0.7	100.0
성별	남자 (498)	48.6	25.8	11.0	11.3	0.5	0.5	0.3	1.2	0.9	100.0
	여자 (502)	45.6	32.3	12.8	6.6	0.8	0.0	0.8	0.7	0.5	100.0
연령	만19~29세 (209)	43.1	29.2	10.3	15.0	0.7	0.0	0.8	0.9	0.0	100.0
	30대 (228)	46.5	24.4	14.9	11.8	0.7	0.3	0.6	0.8	0.0	100.0
	40대 (244)	45.6	31.9	13.0	8.1	0.0	0.7	0.0	0.4	0.4	100.0
	50대 (196)	50.3	31.0	8.8	4.7	0.7	0.0	0.5	2.6	1.4	100.0
	60대 이상 (123)	52.8	28.4	11.6	1.9	1.3	0.0	1.2	0.0	2.7	100.0
지역	서울 (212)	40.5	30.7	18.7	7.7	1.4	0.0	0.7	0.4	0.0	100.0
	인천/경기 (278)	54.0	23.6	12.8	7.6	0.5	0.3	0.6	0.0	0.6	100.0
	대전/충청 (97)	37.0	30.6	22.9	6.9	0.0	0.0	0.9	1.7	0.0	100.0
	광주/전라 (98)	35.9	43.8	6.1	10.0	0.9	0.0	1.5	0.9	0.9	100.0
	대구/경북 (108)	61.4	18.5	5.2	7.6	0.0	0.0	0.0	5.8	1.6	100.0
	부산/울산/경남 (177)	49.5	30.5	3.7	13.4	0.5	0.9	0.0	0.0	1.5	100.0
강원 (30)	33.6	43.8	10.7	12.0	0.0	0.0	0.0	0.0	0.0	100.0	
종교	개신교 (183)	27.2	14.6	47.1	8.8	1.5	0.8	0.0	0.0	0.0	100.0
	가톨릭교 (110)	54.7	26.7	5.3	9.3	1.3	0.0	2.7	0.0	0.0	100.0
	불교 (228)	57.4	28.7	3.7	6.6	0.0	0.0	0.7	1.5	1.5	100.0
	기타 (8)	66.3	33.7	0.0	0.0	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470)	47.8	35.3	3.8	10.2	0.4	0.2	0.2	1.3	0.8	100.0

### 3. 종교 관련 인식



#### 3-7. 기독교 예수 가르침/행동에 대한 신뢰도

- 2010년 기독교 관련 예수 가르침/행동에 대한 신뢰 정도는 40.2%로 나타남. 이는 개신교회 신뢰도 17.6%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이 Gap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가 개신교회 전체의 큰 과제임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 보면, 여성, 50대, 수도권 지역에서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
- 예수의 가르침/행동에 대해 기독교 신자는 10명 중 8명 이상이 신뢰한다고 응답해, 가톨릭교 신자(65.3%)보다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 더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신뢰함 (매우+약간)	보통	신뢰안함 (별로+전혀)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40.2	35.4	24.2	0.2	100.0
성별	남자 (498)	35.7	37.2	27.1	0.0	100.0
	여자 (502)	44.6	33.7	21.4	0.3	100.0
연령	만19~29세 (209)	27.4	40.4	32.2	0.0	100.0
	30대 (228)	39.6	34.1	26.2	0.0	100.0
	40대 (244)	44.1	37.5	18.4	0.0	100.0
	50대 (196)	47.0	31.4	21.5	0.0	100.0
	60대이상 (123)	44.3	31.7	22.6	1.4	100.0
지역	서울 (212)	45.7	30.4	24.0	0.0	100.0
	인천/경기 (278)	45.0	37.5	16.8	0.6	100.0
	대전/충청 (97)	38.8	39.6	21.5	0.0	100.0
	광주/전라 (98)	48.3	22.4	29.3	0.0	100.0
	대구/경북 (108)	29.8	38.2	32.0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7)	29.6	41.6	28.9	0.0	100.0
강원 (30)	34.1	34.9	31.1	0.0	100.0	
종교	개신교 (183)	86.2	9.6	4.2	0.0	100.0
	가톨릭교 (110)	65.3	24.0	10.7	0.0	100.0
	불교 (228)	22.1	48.5	28.7	0.7	100.0
	기타 (8)	0.0	44.6	55.4	0.0	100.0
	종교 없음 (470)	25.9	41.7	32.4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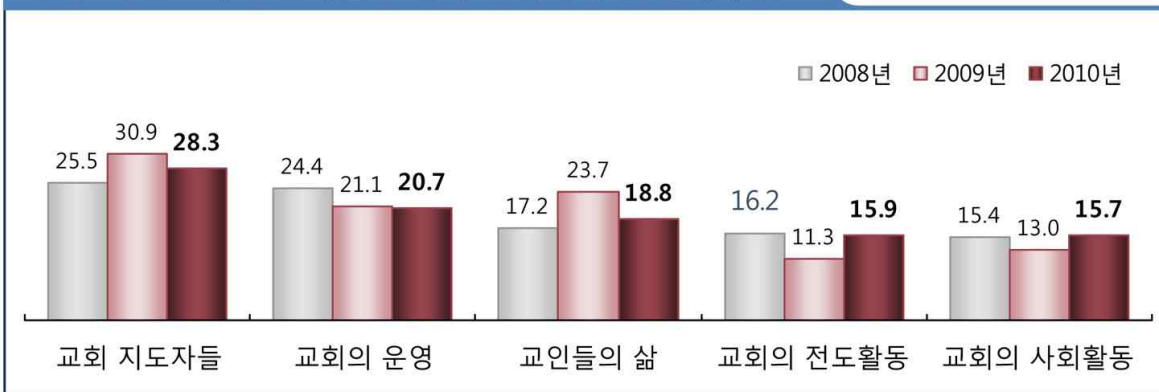
## 4. 개신교회가 할 일

### 4-1.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

- 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28.3%(가장 기준)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지적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 보면, 남성, 50대, 서울 지역, 소득이 많을 수록, 가톨릭 교인에게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이 높게 나타남.
-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은 작년 조사에 비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3년 째 가장 높게 나타남.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 (가장)

N=1,000, 단위: %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 (가장 기준)

구분	사례수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운영	교인들의 삶	교회의 전도활동	교회의 사회활동	타종교에 대한관용	없음	계	
전체	(1000)	28.3	20.7	18.8	15.9	15.7	0.1	0.5	100.0	
성별	남자	(498)	31.4	21.8	16.2	14.8	15.1	0.2	0.5	100.0
	여자	(502)	25.3	19.7	21.4	17.1	16.2	0.0	0.3	100.0
지역	서울	(212)	40.6	17.9	14.3	11.7	15.5	0.0	0.0	100.0
	인천/경기	(278)	27.3	29.5	15.6	15.8	11.8	0.0	0.0	100.0
	대전/충청	(97)	30.0	28.7	14.4	11.4	15.5	0.0	0.0	100.0
	광주/전라	(98)	27.7	19.0	23.1	12.9	14.7	0.0	2.6	100.0
	대구/경북	(108)	17.8	17.2	22.1	23.2	18.4	0.0	1.4	100.0
	부산/울산/경남	(177)	23.7	11.9	27.7	16.5	19.7	0.5	0.0	100.0
강원	(30)	13.9	5.3	15.8	42.4	22.6	0.0	0.0	100.0	
소득	199만원 이하	(175)	27.0	15.3	24.0	16.2	16.5	0.0	1.0	100.0
	200~299만원	(195)	25.7	21.0	18.6	16.2	18.5	0.0	0.0	100.0
	300~399만원	(208)	29.9	24.3	19.0	12.0	14.7	0.0	0.0	100.0
	400만원 이상	(332)	32.9	20.4	17.1	15.1	13.6	0.3	0.7	100.0
	모름/무응답	(90)	16.2	23.9	14.9	27.3	17.8	0.0	0.0	100.0
종교	개신교	(183)	27.2	19.2	26.8	10.3	16.5	0.0	0.0	100.0
	가톨릭교	(110)	38.7	28.0	14.7	12.0	5.3	0.0	1.3	100.0
	불교	(228)	27.2	15.4	21.3	22.1	13.2	0.0	0.7	100.0
	기타	(8)	53.2	20.5	0.0	13.2	13.2	0.0	0.0	100.0
	종교 없음	(470)	26.5	22.3	15.7	16.1	19.0	0.2	0.2	100.0

## 4. 개신교회가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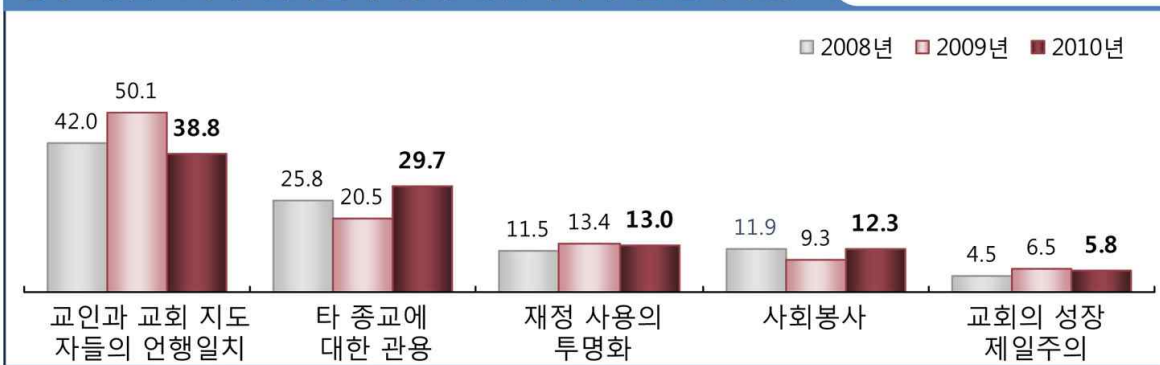


### 4-2.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 앞으로 한국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응답자 388%가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를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타 종교에 대한 관용(19.7%)' > '재정 사용의 투명화(13.0%)' 순으로 지적함.
- 지난 조사 대비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는 11.3% 포인트 하락한 반면,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은 9.2% 포인트 상승하였음.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는 '여자', '60대 이상', '인천/경기' 지역, 개신교 신자에게서,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은 '남자', '50대', '경상도', '광주/전라' 지역, 불교신도에게서 높게 나타남.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가장)

N=1,000, 단위: %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가장 기준)

구분	사례수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	타종교에 대한 관용	재정 사용의 투명화	사회봉사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38.8	29.7	13.0	12.3	5.8	0.3	0.1	100.0
성별	남자 (498)	33.8	34.5	13.1	12.4	5.7	0.5	0.0	100.0
	여자 (502)	43.8	25.0	12.9	12.1	5.8	0.0	0.3	100.0
연령	만19~29세 (209)	31.4	31.2	15.0	14.4	8.0	0.0	0.0	100.0
	30대 (228)	43.4	26.3	17.3	10.7	1.2	1.2	0.0	100.0
	40대 (244)	39.4	30.3	10.3	13.1	6.9	0.0	0.0	100.0
	50대 (196)	37.6	35.1	9.2	10.5	7.7	0.0	0.0	100.0
	60대 이상 (123)	44.0	23.6	13.2	12.9	5.0	0.0	1.4	100.0
지역	서울 (212)	32.3	25.6	17.7	17.9	6.4	0.0	0.0	100.0
	인천/경기 (278)	49.6	26.8	13.1	6.8	3.7	0.0	0.0	100.0
	대전/충청 (97)	32.8	28.7	13.8	9.8	14.9	0.0	0.0	100.0
	광주/전라 (98)	36.3	33.0	11.6	12.4	4.1	0.9	1.7	100.0
	대구/경북 (108)	37.0	32.2	14.1	10.4	5.5	0.8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7)	35.2	37.7	8.1	14.6	4.3	0.0	0.0	100.0
강원 (30)	40.1	22.0	5.6	23.3	6.0	3.0	0.0	100.0	
종교	개신교 (183)	53.6	16.1	10.7	16.9	2.7	0.0	0.0	100.0
	가톨릭교 (110)	32.0	33.3	14.7	14.7	5.3	0.0	0.0	100.0
	불교 (228)	36.0	36.0	8.8	13.2	5.1	0.0	0.7	100.0
	기타 (8)	24.0	0.0	10.9	24.0	41.0	0.0	0.0	100.0
	종교 없음 (470)	36.3	31.7	15.5	9.2	6.7	0.6	0.0	100.0

## 4. 개신교회가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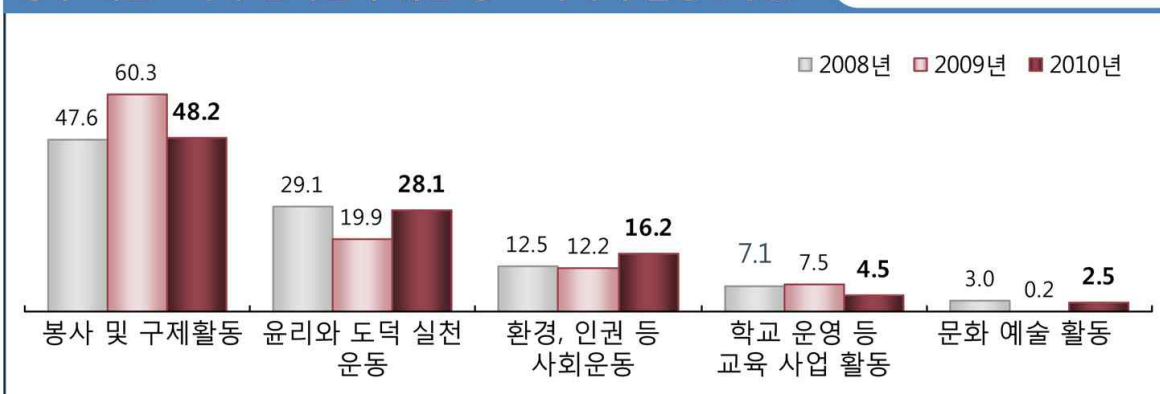


### 4-3.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한 중요 사회적 활동

-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1순위는 '봉사 및 구제활동 (4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28.1%)', '환경,인권 등 사회운동(16.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개신교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봉사 및 구제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들은 기독교(개신교)가 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이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봉사 및 구제활동' 응답은 '20대', '인천/경기', '대전/충청' 지역 기독교인에서,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 응답은 '대구/경북', 불교신도'에게서 높게 나타남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한 중요 사회적 활동 (가장)

N=1,000, 단위: %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한 중요 사회적 활동 (가장 기준)

구분	사례수	봉사 및 구제활동	윤리와도덕 실천운동	환경,인권 등 사회운동	학교운영등 교육사업활동	문화 예술 활동	없음	모름/무응답	계
전체	(1000)	48.2	28.1	16.2	4.5	2.5	0.3	0.2	100.0
성별	남자 (498)	46.6	27.4	18.4	4.8	2.3	0.5	0.0	100.0
	여자 (502)	49.9	28.8	14.0	4.2	2.6	0.2	0.3	100.0
연령	만19~29세 (209)	53.5	22.4	16.3	4.7	3.1	0.0	0.0	100.0
	30대 (228)	42.4	32.5	16.3	4.7	3.3	0.7	0.0	100.0
	40대 (244)	48.0	29.8	16.3	3.6	1.9	0.4	0.0	100.0
	50대 (196)	49.9	28.9	15.0	4.0	2.2	0.0	0.0	100.0
	60대 이상 (123)	48.0	24.9	17.5	6.2	1.4	0.7	1.4	100.0
지역	서울 (212)	46.4	30.3	19.4	3.8	0.0	0.0	0.0	100.0
	인천/경기 (278)	54.2	22.9	15.8	5.6	0.6	0.3	0.6	100.0
	대전/충청 (97)	55.5	27.4	12.8	1.7	2.6	0.0	0.0	100.0
	광주/전라 (98)	41.5	29.2	20.0	1.8	5.8	1.7	0.0	100.0
	대구/경북 (108)	40.2	34.9	14.9	4.6	4.5	0.8	0.0	100.0
	부산울산경남 (177)	43.6	29.3	15.3	6.1	5.6	0.0	0.0	100.0
강원 (30)	60.5	27.6	6.0	6.0	0.0	0.0	0.0	100.0	
종교	개신교 (183)	59.8	23.4	9.6	5.4	1.9	0.0	0.0	100.0
	가톨릭교 (110)	49.3	18.7	28.0	1.3	2.7	0.0	0.0	100.0
	불교 (228)	33.1	41.2	15.4	4.4	4.4	0.7	0.7	100.0
	기타 (8)	57.7	31.4	0.0	10.9	0.0	0.0	0.0	100.0
	종교 없음 (470)	50.7	25.7	16.7	4.8	1.7	0.4	0.0	100.0



GH 101108T

**2010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b>ID</b>					
-----------	--	--	--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 면접원 000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 종교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처리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귀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 역 :**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경기 9)강원 10)충북 11)충남 12) 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연 령 :** 1) 만19~29세 → **만 18세 이하 면접중단**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성 별 :** 1) 남자 2) 여자

문1) ○○님께서 다음 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입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1	2	3	4	5
1-2.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	1	2	3	4	5
1-3. 개신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4. 전체적으로 개신교회를 신뢰한다	1	2	3	4	5

문2)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개신교회에 대한 ○○님의 신뢰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1.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
2. 비슷하다
3.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

문2-1) 더 신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문2-2) 신뢰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문3) ○○님께서 한국(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_\_\_\_\_, 그 다음 \_\_\_\_\_

- |            |             |
|------------|-------------|
| 1. 교회의 운영  | 4. 교회의 사회활동 |
| 2. 교회 지도자들 | 5. 교회의 전도활동 |
| 3. 교인들의 삶  | 6. 기타 _____ |

문4) ○○님께서 한국(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_\_\_\_\_, 그 다음 \_\_\_\_\_

1. 교인과 교회지도자들의 언행일치
2. 타 종교에 대한 관용
3. 사회봉사
4. 재정사용의 투명화
5. 교회의 성장제일주의
6. 기타 \_\_\_\_\_

문5) ○○님께서 다음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한국(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_\_\_\_\_, 그 다음 \_\_\_\_\_

1. 봉사 및 구제활동
2. 환경,인권 등 사회운동
3. 학교 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
4.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5. 문화 예술 활동
6. 기타 \_\_\_\_\_

문6) ○○님께서 다음 중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 |         |         |
|---------|---------|
| 1. 개신교회 | 4. 사법부  |
| 2. 정부   | 5. 언론기관 |
| 3. 국회   | 6. 시민단체 |

문7-1) 그럼, 다음의 종교기관 중에 서는요? **(하나만)**

1. 개신교회
2. 가톨릭교회
3. 불교(사찰)

문8) ○○님께서 다음 중 어느 종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             |                |
|-------------|----------------|
| 1. 기독교(개신교) | 4. 원불교         |
| 2. 가톨릭교     | 5. 유교          |
| 3. 불교       | 6. 기타 종교 _____ |

문9) 그럼, 어느 종교의 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기독교(개신교)                      4. 원불교
- 2. 가톨릭교                              5. 유교
- 3. 불교                                      6. 기타 종교\_\_\_\_\_

문10) ○○님께서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 1. 기독교(개신교)                      5. 유교
- 2. 가톨릭교                              6. 기타 \_\_\_\_\_
- 3. 불교                                      7. 종교 없음
- 4. 원불교

문10-1) [ 문10에서 ⑦ 종교 없는 사람만 ]

○○님께서 앞으로 종교를 가질 생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 생각이십니까?

- 1. 기독교(개신교)                      5. 유교
- 2. 가톨릭교                              6. 기타 \_\_\_\_\_
- 3. 불교                                      9.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다
- 4. 원불교

문10-2) [ 문10에서 종교 있는 사람만 ]

○○님께서 현재 종교를 바꿀 의향이나 종교생활을 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까?

- 1.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다 → 문10-3으로
- 2.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을 의향이 있다
- 3. 바꿀 의향이 없다

문10-3) [ 문10-2에서 ①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는 응답자만 ]

어느 종교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 1. 기독교(개신교)                      4. 원불교
- 2. 가톨릭교                              5. 유교
- 3. 불교                                      6. 기타 \_\_\_\_\_

문11) [전체에게] ○○님께서 종교를 믿는 것에 관계없이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 1. 기독교(개신교)                      4. 원불교
- 2. 가톨릭교                              5. 유교
- 3. 불교                                      6. 기타 \_\_\_\_\_

문12) ○○님께서 한국(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습니까?

- 1. 매우 관심이 있다
- 2. 대체로 관심이 있다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관심이 없다
- 5. 전혀 관심이 없다

문13) ○○님께서 (교인의 경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이외의) 개신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알게 됩니까? (하나만)

- 1.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에서 발간하는 책자 등을 통하여 안다
- 2. TV,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안다
- 3. 가족, 친구나 이웃을 통해 안다
- 4.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통해 안다
- 5. 인터넷(뉴스 포털, 토론방 등)
- 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사회적 미디어
- 7. 기타 \_\_\_\_\_

문14) ○○님께서 기독교를 믿는 것과 관계없이 ○○님이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 얼마나 믿음이 가십니까?

- 1. 매우 믿음이 간다
- 2. 약간 믿음이 간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 5.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통계 처리용 질문**

※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DQ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농업/임업/어업                      6. 가정주부
- 2. 자영업                                  7. 학생
- 3. 판매/영업/서비스직                  8. 무직/퇴직/기타
- 4. 생산/기능/노무직                      9. 모름/무응답
- 5. 사무/관리/전문직

DQ2) ○○님 댁 식구들이 벌어오는 가구의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은요? 금융소득까지 포함해서요.

- 1. 99만원 이하                          4. 300~399만원 이하
- 2. 100~199만원 이하                      5. 400~499만원 이하
- 3. 200~299만원 이하                      6. 500만원 이상

DQ3)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쳤습니까?

-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재 이상

DQ4) [문11에서 종교 있는 사람만] ○○님께서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읽어줄 것)

- 1. 매우 깊다
- 2. 약간 깊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깊지 않다
- 5. 전혀 깊지 않다

◀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 201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



김 병 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기윤실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

서울대 경제학과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경제학박사)에서 공부했으며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명국제학술지에 2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였고 한국경제학회의 청람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 인문사회과학분야 대한민국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주로 경제체제의 이행과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 I.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취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이들을 전화로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이 사회적 신뢰도 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점검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기윤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 이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교회의 건강성은 하나님, 교인들, 그리고 교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속한 이웃, 더 크게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독교인<sup>1)</sup>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기 점검은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일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교인들, 그리고 이웃이나 일반 국민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이웃이나 일반 국민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독교인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있다면 비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효력은 심각히 훼손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교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나타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교인들과 이웃의 평가가 한결 같이 교회를 높게 신뢰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이웃의 신뢰가 교인의 신뢰에 비해 떨어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 다수는 개신교인인 반면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개신교인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해석이다. 둘째, 교인들과 이웃 사이에 교회에 대한 정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즉 교인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보다 교회 지도자, 교인, 교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으며 이 정보가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에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가치관이 서로 충돌하면서 비개신교인이 평가하는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신교인과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정보의 격차 혹은 소통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개신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팔이 안으로 굽듯이 개신교

1) 본 여론조사와 본 글에서는 기독교와 개신교, 기독교인과 개신교인, 한국 교회와 한국 개신교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들은 개신교회에 대한 좋은 정보를 그렇지 않은 정보에 비해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반영하기 때문에 이 격차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개신교인들이 평가하는 교회의 건강성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첫 번째 이유가 개신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신뢰도 격차의 전부를 설명한다면 이는 개신교회의 건강성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신뢰도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개신교인들의 소통의 노력,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가 신뢰도 격차의 주된 이유라면 이는 개신교회의 건강성을 개신교인의 평가로써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해 개신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보다 이웃이나 일반 국민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개신교인들이 평가한 교회의 신뢰도 격차가 매우 크다면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혹은 소통의 부족 때문으로 돌릴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그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종교 기관이나 사회기관 보다 낮다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 결과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기독교인들의 인품과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러한 인품과 삶은 교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일반 국민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도 적어도 다른 종교, 다른 사회기관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여론 조사 결과 개신교회의 신뢰도가 다른 종교 기관 혹은 사회기관 보다 낮다면 이는 개신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고 한다. 과연 한국 교회의 신뢰수준은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다른 종교기관 혹은 사회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만약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를 다음의 가장 중요한 물음에 직면하도록 만들 것이다. 과연 한국교회는 건강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II. 설문 문항 작성의 원칙 및 설문의 구조

우리는 설문 문항의 작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객관적인 신뢰도를 도출하기 위해 수치화할 수 있는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즉 신뢰도는 5점 척도나 100점 척도의 수치로 표현되어서 횡단면적인 비교(예: 한국의 사회기관 또는 다른 종교기관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하여 응답내용들이 상호 점검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셋째, 설문의 보기들은 가능한 한 배타적이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응답 결과, 응답자 중에서의 기독교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 중에서의 기독교인의 비중보다 많아짐으로써 응답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종교 구성 비율에 따라 표본의 종교에 가중치를 부과하였다.

본 설문은 한국 교회 신뢰도의 구성 요소를 개신교인, 개신교회 지도자, 그리고 개신교회의 활동으로 이해하고 한국 교회의 전체 신뢰도 측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별 구성 요소의 신뢰도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했다. 또한 개신교회와 사회 내의 다른 기관들, 그리고 다른 종교 기관들을 상호 비교하여 한국 교회 신뢰도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설



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신뢰도가 교회와 사회의 소통, 즉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 아는 정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와 개신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즉 교회의 신뢰도가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교회와 관련된 문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0년에는 작년에 비해 2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2개의 문항은 새로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신교회를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문항을 삭제하고, 대신 지난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또한 정계·관계·재계의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한 교회 신뢰도 변화를 묻는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를 묻는 기존의 문항에 추가하여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하는 종교에 대해 물었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설문문의 문항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설문 문항 구조

개신교회 신뢰도와 구성요소	신뢰, 불신의 이유	비교검토	신뢰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신교회 교인의 신뢰도 (문1-1)</li> <li>•개신교회 지도자의 신뢰도 (문1-2)</li> <li>•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 (문1-3)</li> <li>•개신교회의 신뢰도 (문1-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신교회를 더 신뢰하게 된, 또는 더 불신하게 된 이유 (문2-1,2-2)</li> <li>• 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 (문11)</li> <li>• 개신교회 활동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 (문1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대비 교회 신뢰도 변화 (문2)</li> <li>•다른 기관과 개신교회의 신뢰도 비교 (문6)</li> <li>•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잘하는 종교 (문7,8)</li> <li>•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 (문10)</li> <li>•예수에 대한 신뢰도 (문1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 (문3)</li> <li>•개신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문4)</li> <li>•개신교회가 해야 할 사회 활동 (문5)</li> <li>•앞으로 종교 가질 의향과 변경 의향 여부 (문9)</li> </ul>

## Ⅲ. 설문 결과 및 분석

201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2010년 11월 8일부터 10일 동안 만 19세 이상의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GH코리아(구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전화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표본은 층화추출법을 사용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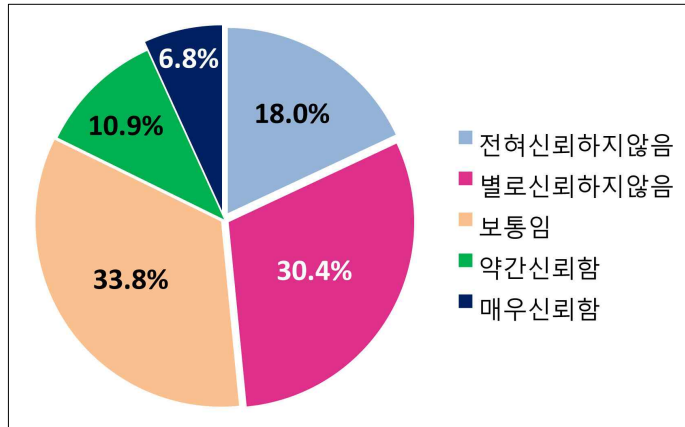
### 1. 한국 교회의 신뢰도 수준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다섯 가지의 보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각각의 보기에 대해 1점, 2점, 3점, 4점, 5점을 부여하고 응답자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5점 척도의 점수로 변환하였다. 조사 결과 이와 같이 5점 척도로 평가한 평균 점수는 2.58점으로 나타났다. 즉 중간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보기인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가 3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은 셈이다. 또한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응답자의 17.6%에 불과한 반면,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33.8%이었으며 불신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48.4%로 조사되었다(<그림 2>).<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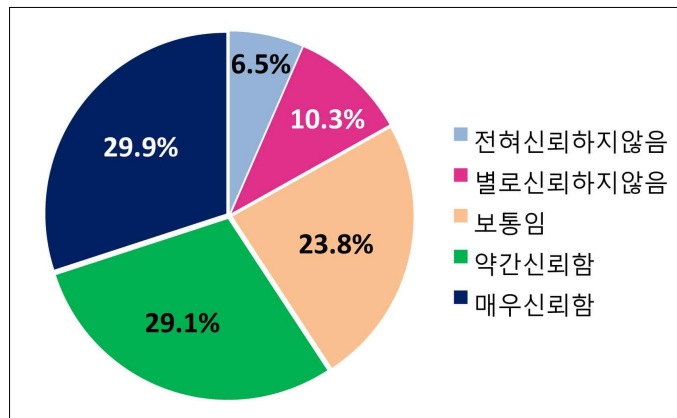
또한 응답 내용을 "매우 신뢰한다"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까지 5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각각 90점, 70점, 50점, 30점, 10점을 부여하여 응답자의 비중으로 가중평균 하였을 때 신뢰도는 41.48점으로 나타났다.3) 이를 다시 80점 이상은 A학점, 60-79점은 B학점, 40-59점은 C학점, 20-39점은 D학점, 20점미만은 F학점으로 분류했을 때 한국 개신교회는 C-학점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내용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인의 경우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전체 기독교인의 59%이고, 불신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16.8%로 나타났다. 즉, 개신교인들의 절반 이상은 개신교회를 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비개신교인의 경우에는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8.2%이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55.4%로서, 개신교인의 경우와 반대로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개신교회를 불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그림 4>).

<그림 2> 일반 국민의 한국개신교회 신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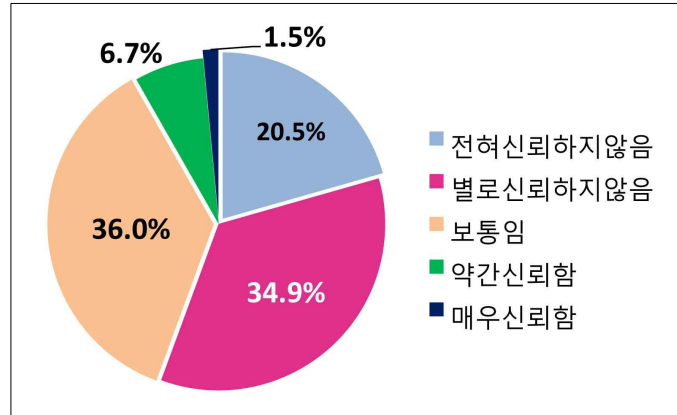
<그림 3> 개신교인의 한국개신교회 신뢰 정도



2) 이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합하여 불신하는 그룹으로 분류했으며 "약간 신뢰한다"와 "매우 신뢰한다"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합해서 신뢰하는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3) "매우 신뢰한다"의 응답에 90점을 부여하였으므로 신뢰지수의 최고점은 90점이다.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응답에 10점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최저점은 10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편의상 이를 100점 척도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양 질문에 대해서 각각 100점과 0점의 점수를 부여해도 가중 평균치는 현재의 배점 방법에 의한 가중치와 크게 차이하지 않는다.

<그림 4> 비개신교인의 한국개신교회 신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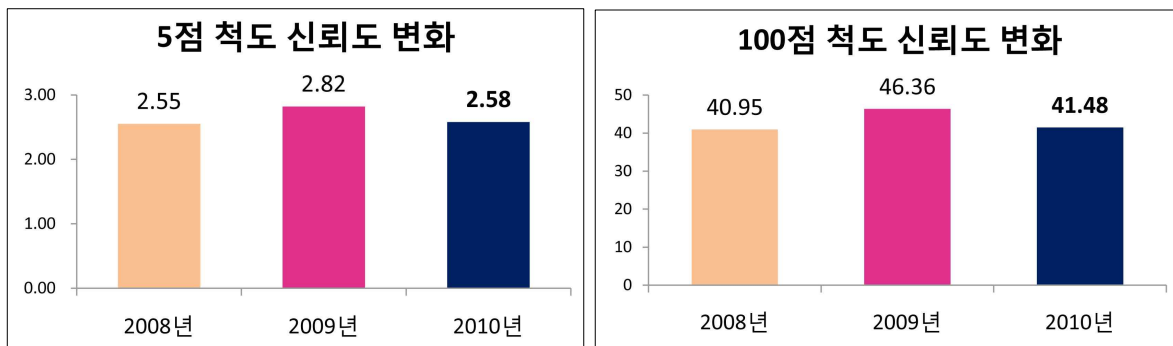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젊은 만 19-29세와 30대에서 교회를 불신하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19-29세의 응답자들이 평가하는 교회신뢰도는 38.3점(100점 척도), 30대의 경우에는 38.7점에 머물렀다. 50대의 응답자들이 평가하는 교회신뢰도도 40.4점으로서 낮은 편에 속하였다. 연령별로 본 교회신뢰도는 60대에서 49.5점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거주지에 따른 신뢰도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거주지가 서울인 응답자들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응답자들의 신뢰도는 가장 낮았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신뢰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응답자들이 소득이 높은 응답자들보다 교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만 원 이하의 월 소득 수준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신뢰도가 43.5점인 반면, 월 소득 400만 원 이상의 응답자가 평가한 신뢰도는 39.5점으로 나타났다.

## 2. 3년 동안의 신뢰도 변화

올해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작년, 재작년의 신뢰도를 비교함으로써 3년 동안 신뢰도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 차이는 유의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작년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하락하였다.<sup>4)</sup> 5점 척도에서는 재작년 2.55점에서 작년 2.82점으로 상승하였지만 올해 다시 2.58점으로 0.24점 하락하였으며 100점 척도에서도 40.95에서 46.36으로 상승한 후, 올해는 41.48점으로 4.88점 하락하였다. 재작년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비해서 올해의 신뢰도는 0.03점 정도의 미약한 상승을 보이지만,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교회에 대한 신뢰도 변화 (5점 척도와 100점 척도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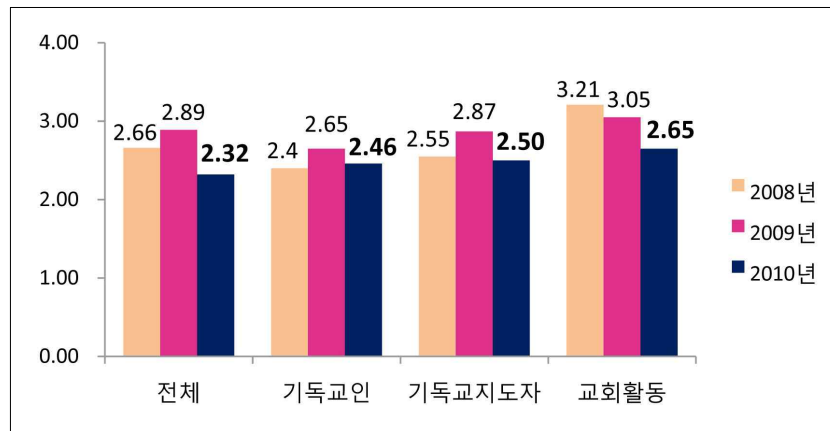


4) 표본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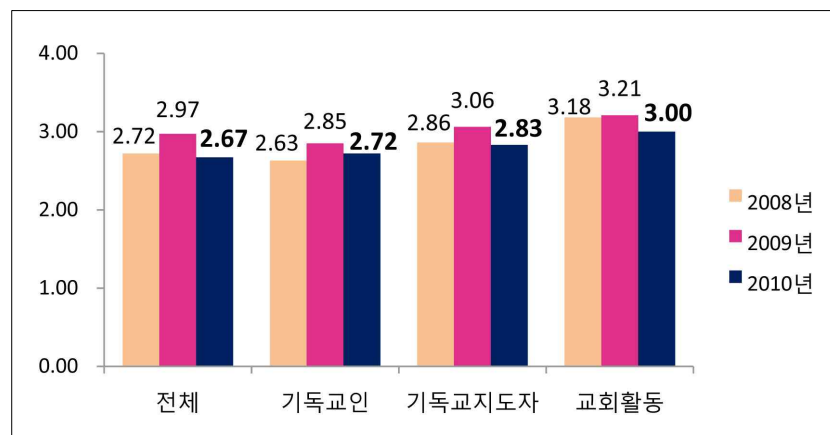
3년 동안의 추이를 종교별로 살펴볼 때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인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비기독교인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큰 변동 폭을 가지고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인의 신뢰도는 2008년 3.88점에서 2009년에는 3.68점으로 0.2점 하락하였고, 올해는 또 다시 0.02점 더 하락하여서 3.66점을 기록하였다. 특히 일반 국민이 평가한 작년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0.27점)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기독교인의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의 방향과는 다른 추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기독교인의 신뢰도는 2008년 2.25점에서 2009년에는 2.62점으로 0.37점 상승하였지만 올해는 0.28점 하락하여서 2.34점을 기록하였다. 즉, 비기독교인은 일반 국민의 신뢰도가 변화하는 정도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의 설문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점은 블루칼라 근로자나 월평균 199만원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서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치의 감소에 비해 더욱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각 개별요소에 대한 신뢰도는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를 제외하고는 2008년보다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6>, <그림 7>). 이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년 전에 비해서 개신교회를 더 많이 불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림 6> 블루칼라 근로자의 각 개별 요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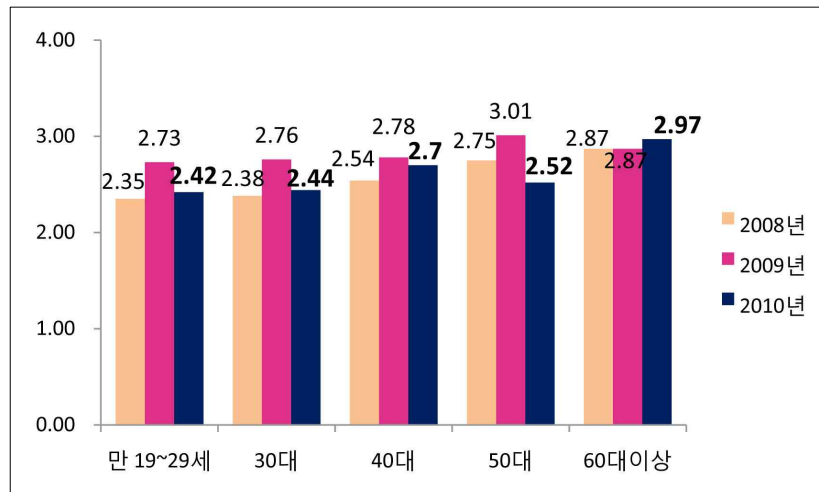


<그림 7> 저소득층의 각 개별 요소에 대한 신뢰도



또한 작년에 비해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낮은 20, 30대의 사람들의 신뢰도 또한 평균 감소폭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젊은 연령층의 신뢰도 감소를 반영하여 직업이 학생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평균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흥미로운 점은 작년의 조사에서는 20, 30대의 사람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재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신뢰도 상승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20, 30대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다 유동적임을 시사한다. 또한 50대의 신뢰도가 0.49점만큼 크게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중년층이 한국 개신교회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 연령대에 따른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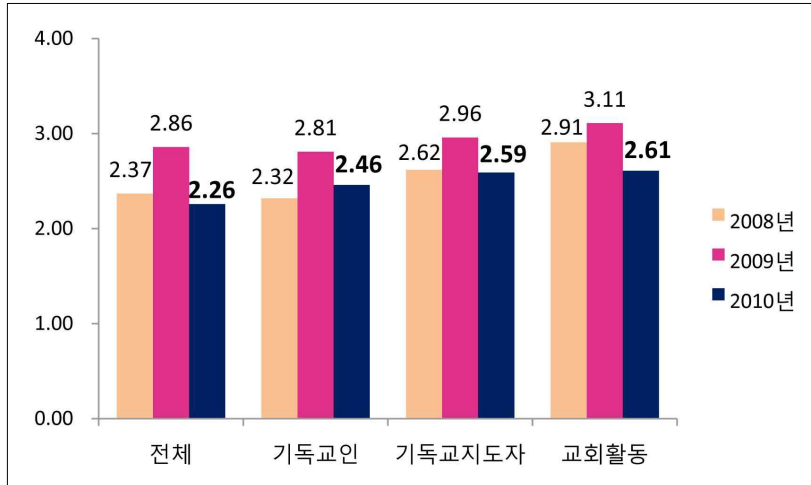


종교별로 작년과의 변화를 살펴보면,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각 개별 요소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9>). 이는 작년의 조사에서 재작년에 비해 불교 신자들의 각 개별 요소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작년의 경우에는 한국 교회가 가톨릭, 불교와 손을 잡고 용산 참사와 같은 아픔들을 함께 나누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으로 인해 비기독교인들이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한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봉은사 땅밟기 사건 등으로 인해 불교 신자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묻는 문항에서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작년과 비교할 때 다른 항목보다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불교 신자들은 이 항목을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일치’라는 항목과 함께 한국교회의 개선점 1순위로 꼽고 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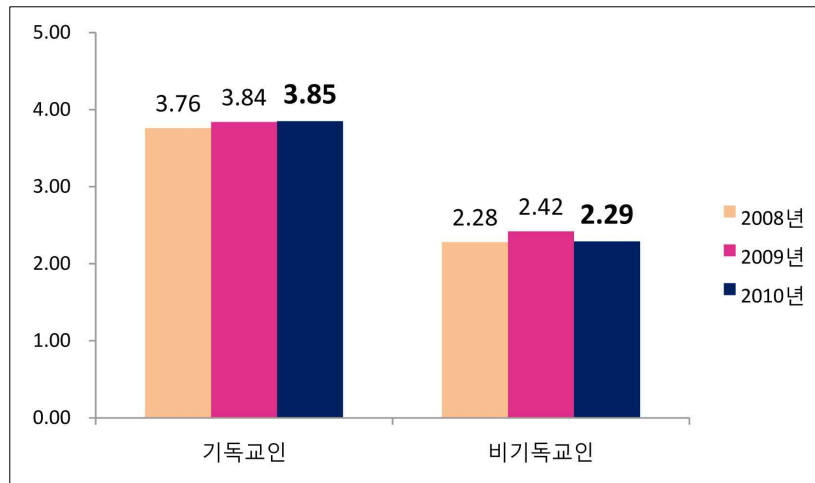
그리고 교회가 일반인들과 소통함으로써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도 작년에 비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회 활동 관심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작년은 2.68점이었고 올해는 2.57점으로써 0.11점 감소하였다. 이를 다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경우로 나누어 보면, 기독교인의 관심 정도는 오히려 0.01점 증가한 반면, 비기독교인의 관심 정도는 2.29점으로써 0.13점 감소하여 기독교인의 경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10>).

5) 7.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참고

<그림 9> 불교 신자들의 각 개별 요소에 대한 신뢰도



<그림 10>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



### 3. 2-3년 전 대비 신뢰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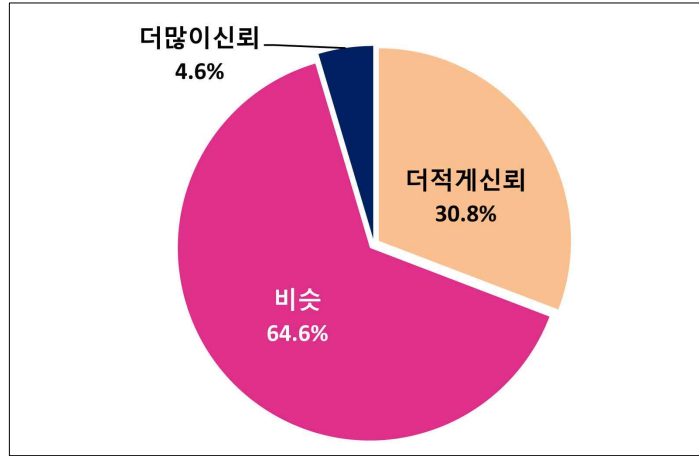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64.6%)이 비슷하다고 답하였고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0.8%이며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4.6%에 불과하였다. 동일 문항에 대한 작년의 응답 결과를 보면,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26.6%이며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4.0%였다(<그림 11>). 따라서 작년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비슷한데 반해서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신교회의 신뢰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시사한다.

작년의 경우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연령대가 낮은 20,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비해서 올해는 30대와 50대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0대, 50대는 각각 36.2%, 34.5%의 사람들이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그렇게 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20대 25.2%, 40대 29.1%, 그리고 60대 이상은 27.4%를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는 작년에 비해 연령대가 높은 중년층이 개신교회에 대해 더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불교 신자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불교를 믿고 있는 경우와 종교가 없는 경우는 각각 34.6%, 32.8%의 사람들이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했고 나머지 종교에서 그렇게 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기독교 18.8%, 가톨릭교 32%, 그리고 기타의 경우는 57.7%를 기록했다.

<그림 11> 과거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여부



과거 2~3년 전과 비교해서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응답한 사람들 중 18.6%가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접해서'라고 답했다. 또한 언행일치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교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신뢰도 하락의 이유로 꼽은 사람들이 많았다. 이와 함께 개신교회를 더 신뢰하게 된 이유로는 '신앙이 깊어졌기 때문'과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해서'라는 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개신교회 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 채널에 대한 질문에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언론 매체를 꼽았으며,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도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내용들을 접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서 개신교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4. 신뢰도 순서 : 교회활동>목사>교인

한국 교회의 신뢰도 전반에 대한 측정과 함께 교인, 목사, 그리고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교인, 목사, 그리고 교회활동의 순서로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진술에 동의(매우 또는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16.5%에 불과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는 응답자의 비중은 3배에 가까운 45.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진술에는 22.2%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40.8%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에는 26.5%가 동의하는 것으로, 38.7%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인, 목사, 교회활동의 신뢰도는 각각 42점(2.60-5점 척도), 44.72점(2.75), 46.46점(2.83)으로 산출되었다.<sup>6)</sup> 이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회 기여는 인정하면서도 교인들과 목사들에 대해서는 깊이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의 문제가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6) 각 요소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가 유의한지 보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목사와 교인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는 유의하였고, 목사와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는 5% 유의수준 하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10% 유의수준 하에서는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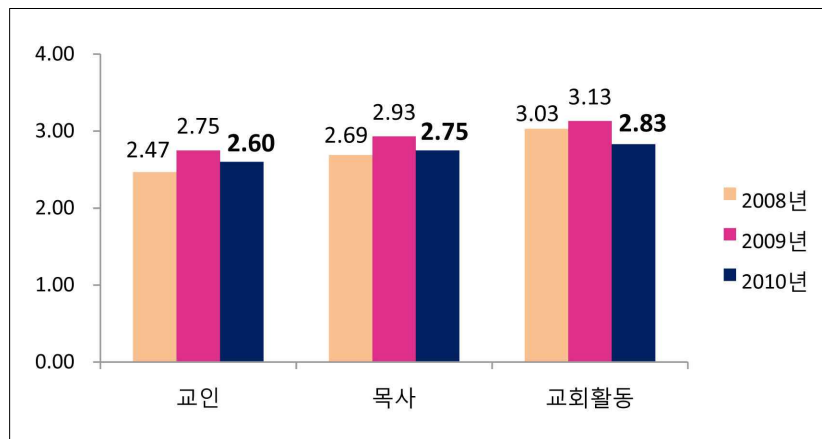
<표 1> 개신교인, 개신교회 지도자,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전혀 신뢰하지 않음	별로 신뢰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신뢰함	매우 신뢰함
개신교인	17.3%	28.1%	37.9%	9.8%	6.7%
교회지도자	15.0%	25.8%	36.6%	14.0%	8.2%
교회활동	13.0%	25.7%	34.4%	18.0%	8.5%

이러한 신뢰도의 순서는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기독교인으로 국한된 경우에는 다르게 나타나서, 교인, 교회활동, 그리고 목사의 순서로 신뢰도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고 동의한 기독교인(66.7%)과 개신교회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독교인(65.1%)은 그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신뢰한다고 동의한 기독교인(50.5%)의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기독교인들은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비기독교인들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지만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교인들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각 개별요소에 대한 신뢰도를 재작년, 작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신뢰도의 순서는 3년 동안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의 각 개별요소에 대한 신뢰도는 작년에 비해 모든 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크게 하락한 요소는 교회활동으로서 0.3점 하락하였고, 목사에 대한 신뢰도와 교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0.18점, 0.15점 하락하였다.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는 작년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았지만, 올해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각 개별요소 중에서,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았던 유일한 요소인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조차 크게 하락한 것은 우려할 만하다(<그림 12>).

<그림 12> 작년과 올해의 각 개별요소에 대한 신뢰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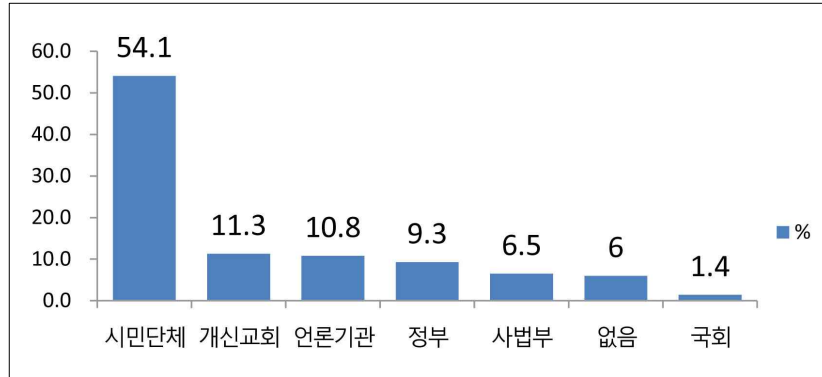
**5. 비기독교인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 시민단체>언론기관>정부>사법부>개신교회>입법부**

개신교회와 시민단체,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54.1%가 시민단체를 신뢰하며, 11.3%가 개신교회를, 10.8%가 언론기관, 9.3%가 정부, 6.5%가 사법부, 그리고 1.4%가 입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신뢰하는 기관이 이 중에서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도 6%에 달하였다.

7) 표본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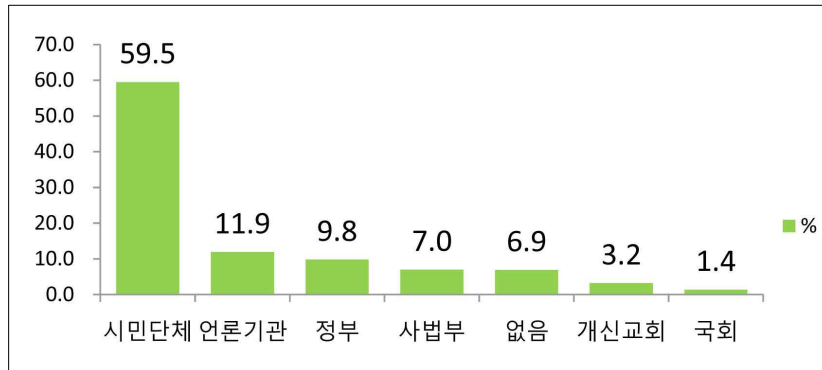


<그림 13> 가장 신뢰하는 기관 (개신교인 포함)



개신교회는 시민단체 다음으로, 언론기관이나 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보다는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77% 가량이 개신교인임을 고려하여 이들을 제외한 비개신교인만을 대상으로 개신교회와 타 기관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 경우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은 3.2%에 불과하였고, 이는 대부분의 다른 기관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중보다 낮으며 입법부에 대한 신뢰 비중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뢰하는 기관의 순서가 종교가 개신교인 아닌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신교인 중에서도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47.5%로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림 14> 가장 신뢰하는 기관 (개신교인 제외)



특히 이 결과는 응답자의 종교에 따라 응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를 보면 종교를 가톨릭교라고 밝힌 응답자들이 신뢰하는 기관의 순서는 시민단체(65.3%), 사법부(10.7%), 언론기관(9.3%), 정부(2.7%), 개신교회(1.3%), 그리고 입법부(0%)의 순이었다. 또한 불교를 종교로 가진 응답자들이 신뢰하는 기관의 순서는 시민단체, 정부, 언론기관, 사법부(개신교회와 동일한 비율), 그리고 입법부의 순이었다. 종교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하는 이들의 비중은 3.1%에 불과하며 이 비중은 시민단체,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보다 현저히 낮고 입법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신교인을 제외한 비개신교인(가톨릭교, 불교, 기타종교 및 종교 없음)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시민단체,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개신교회, 입법부 순이다.

<표 2> 종교별 응답자와 가장 신뢰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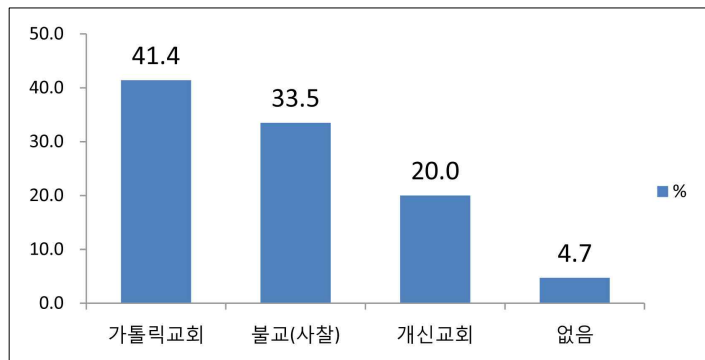
종교 \ 기관	시민단체	개신교회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없음	국회
기독교	30.3%	47.5%	6.5%	6.9%	4.6%	2.7%	1.1%
가톨릭교	65.3%	1.3%	9.3%	2.7%	10.7%	10.7%	0.0%
불교	61.8%	4.4%	7.4%	12.5%	4.4%	7.4%	1.5%
종교없음	56.8%	3.1%	14.8%	10.2%	7.1%	5.8%	1.7%

작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개신교회를 제외한 모든 타 기관의 신뢰 비율은 증가하였고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만 3.2% 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작년에는 비기독교인이 평가한 신뢰 기관의 순서에 있어 개신교회가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다음으로 높았지만, 올해는 입법부보다 다소 높고 다른 기관들보다는 현저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 불교 신자들의 비율이 12% 포인트만큼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 6. 종교기관의 신뢰도 : 가톨릭교회>불교>개신교회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그리고 불교(사찰)라는 세 종교기관 사이의 신뢰도를 비교한 결과 41.4%의 응답자가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 가톨릭교회를 뽑았고, 20.0%가 개신교회를, 그리고 33.5%가 불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작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가톨릭교회는 5.2% 포인트, 불교는 11.5% 포인트만큼 증가한데 비해서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6.1% 포인트 감소하였다. 따라서 작년에는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에 이어서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 뽑혔지만 올해는 불교보다 그 순위가 떨어졌으며, 이는 제작년의 순위와 같다.

<그림 15>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종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불교 신자들이 개신교회에 대해 답한 결과가 작년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전체 불교 신자 중에서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중이 25.1%였지만 올해는 0.7%로서 24.4% 포인트만큼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가톨릭교회를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 꼽은 사람들의 비중은 자신들의 실제 종교와 관계없이 모두 증가하였다. 종교를 기독교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가톨릭교회를 더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5.7% 포인트만큼 증가하여서 18.8%를 기록한 반면에, 가톨릭 신자 중에서는 100%의 사람들이 가톨릭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하였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470명의 사람들 중에서는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불과 11.7%에 불과한 반면, 가톨릭교회는 44.9%, 불교는 34.9%의 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 응답하였다(<표3>).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불교를 가

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든 반면, 19세 이상부터 60대 미만의 응답자들은 가톨릭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어느 연령대에서도 신뢰도 면에서 가톨릭교회, 불교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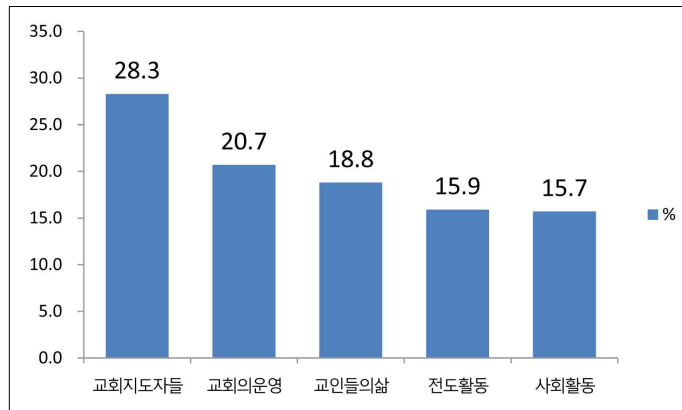
**<표 3>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응답자의 종교특성 반영**

신뢰종교 실제종교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불교(사찰)	없음
기독교	77.0%	18.8%	2.7%	1.5%
가톨릭교	0.0%	100.0%	0.0%	0.0%
불교	0.7%	25.7%	69.9%	2.9%
종교없음	11.7%	44.9%	34.9%	7.9%

## 7.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 교인과 지도자들의 언행일치, 봉사 및 구제

그렇다면 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설문조사는 이에 관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할 대상을 교회지도자들, 교회의 운영, 교인들의 삶, 교회의 전도활동, 교회의 사회활동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회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활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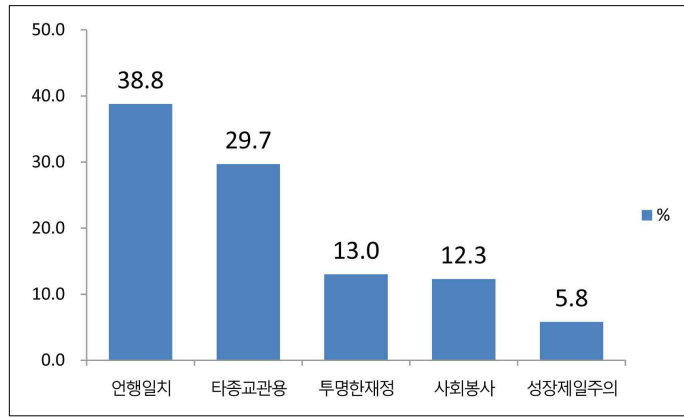
**<그림 16>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점**



<그림 1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가 더 신뢰받기 위해서 먼저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서 교회 지도자들(28.3%)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회의 운영(20.7%), 그리고 교인들의 삶(18.8%)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는 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다. 하지만 먼저 바뀌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사회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일반 교인들에게 거는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부분으로 교회의 전도활동(15.9%)이나 교회의 사회활동(15.7%)을 지정한 비율은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운영, 교인들의 삶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작년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서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운영, 교인들의 삶을 꼽은 사람들의 비중은 모두 감소한 반면에 교회의 전도활동과 사회활동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특히, 교회의 전도활동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은 작년에 비해 모든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는 비개신교인들이 개신교회의 전도 방식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강압적인 전도는 도리어 개신교회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또한 다음 질문에서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두 번째 순위로 들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공격적인 전도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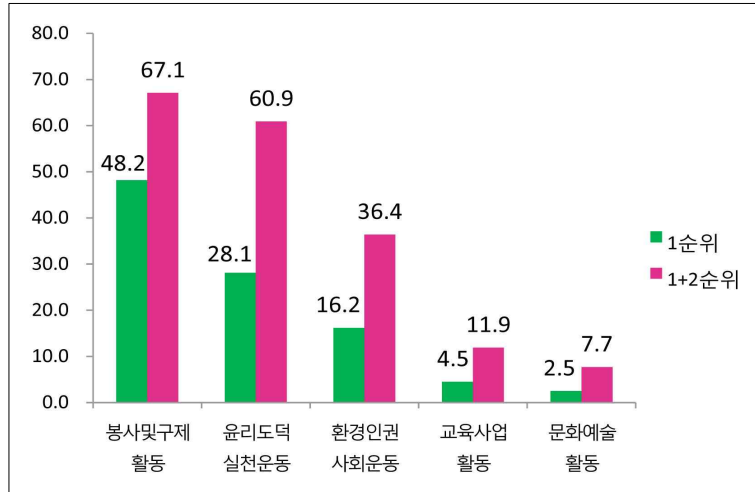
<그림 17>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점



신뢰도 제고의 방법에 관해 묻은 질문, 즉 보기 중에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묻은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역시 사람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응답하였다. <그림 17>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38.8%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일치 면에서 나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종교에 대한 관용(29.7%), 재정사용의 투명화(13.0%), 사회봉사(12.3%), 교회의 성장제일주의(5.8%)의 순으로 답하였다. 이를 작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일치는 작년에 비해 11.3% 포인트 감소한 반면에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은 9.2% 포인트만큼 크게 증가하였다. 언행일치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이 감소한 이유가 언행일치 면에서 나아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교인과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작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년에 비해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가장 시급한 개선책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종교별로 살펴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16.1%의 사람들만이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개선점으로 꼽고 있는 반면에 비기독교인들 중에서는 32.8%의 사람들이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회가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언행일치와 함께 타종교에 대한 관용에 있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회활동 가운데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활동으로는 봉사 및 구제활동(48.2%)을 꼽은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윤리와 도덕실천 운동(28.1%)이 중요하게 나타났다(<그림 18>). 이어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16.2%), 그리고 학교 운영 등 교육사업 활동(4.5%), 문화예술 활동(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회활동과 두 번째로 중요한 사회활동의 보기별 응답비중을 합해서 볼 때, 다수의 응답자들이 봉사 및 구제활동(67.1%), 윤리와 도덕실천 운동(60.9%)을 들고 있어서, 다음 순위인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36.4%)보다 두 배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한 올해의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봉사 및 구제 활동을 꼽은 사람들의 비중은 12.1% 포인트 감소한 반면 윤리와 도덕실천 운동에 대한 선택 비중이 8.2% 포인트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과 두 번째로 중요한 사회활동을 합쳐서 볼 때, 봉사 및 구제활동과 윤리와 도덕실천 운동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식되는 항목의 순위는 작년에 비해 변동이 없지만, 윤리와 도덕실천 운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사회활동 중에서 개신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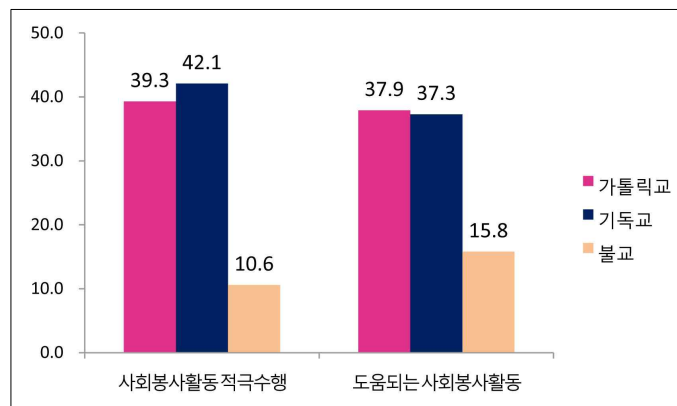


## 8.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에 대해서 물은 결과, 기독교가 42.1%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선택되었고 가톨릭교는 39.3%, 불교는 10.6%를 기록하였다. 이 결과를 비기독교인의 경우에 국한해서 다시 분석했을 때, 비기독교인 중에서는 가톨릭교가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로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기독교, 불교의 순이었다. 이 질문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된 문항으로서 어느 종교의 봉사활동이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가톨릭교와 기독교가 비슷한 수준이었고 불교가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9>).

따라서 기독교는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로 인식되지만,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로는 인식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기독교인들은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종교와 우리 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종교로 가톨릭교를 꼽고 있다. 한편, 과거 2~3년 전과 대비해서 개신교회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답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즉, 사회봉사활동은 개신교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주요 통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으로 개신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19> 사회봉사활동 적극수행,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활동 하는 종교



## 9. 신뢰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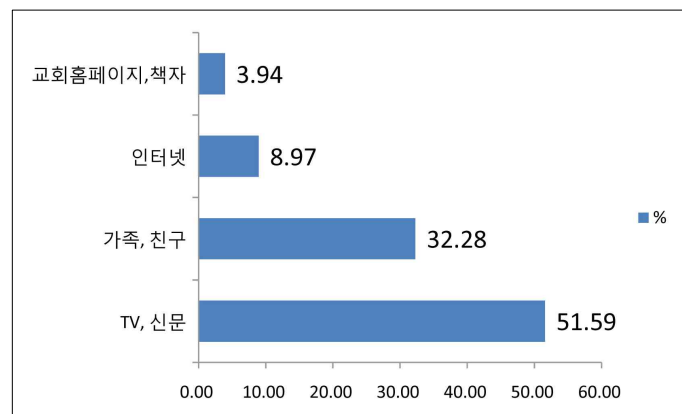
교회의 낮은 신뢰도의 원인을 교인들의 문제뿐 아니라 교회와 일반 시민과의 소통의 부재,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와 어떠한 경로로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47.3%)가 교회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특별히 기독교인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62.8%가 관심이 있으며 10%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기독교인들은 12%만이 관심이 있으며 55.7%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4>). 이를 작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올해에는 개신교회 활동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폭은 비기독교인 응답자의 경우 더욱 커져서 개신교회 활동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비기독교인의 비율은 작년에 비해 13.1% 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4>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전혀 관심없음	별로 관심없음	보통	약간 관심있음	매우 관심있음
전체 응답자	24.6%	22.7%	31.2%	13.5%	7.8%
기독교인 응답자	2.7%	7.3%	27.2%	28.4%	34.5%
비기독교인응답자	29.57%	26.10%	32.13%	10.18%	1.85%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정보를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51.59%)나 가족, 친구 등의 지인(32.28%), 그리고 인터넷(8.97%)을 통해서 주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0>). 작년의 결과와의 차이점은 언론매체를 꼽은 사람들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에 가족, 친구나 인터넷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아직도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인터넷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신교회가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20>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소통의 채널 (비기독교인의 경우)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신뢰도는 5점 척도에서 2.23점에 불과한 반면 약간 관심이 있거나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신뢰도는 2.91점으로 0.68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신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각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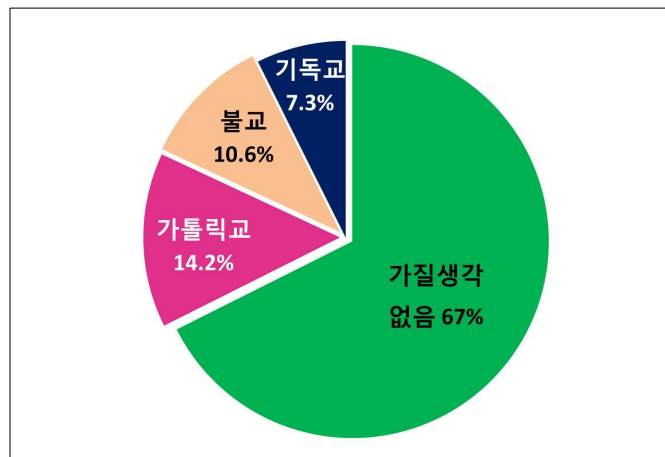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정보 습득 경로에 따른 신뢰도의 점수를 살펴본 결과, 교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습득한 경우는 2.25점, TV나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경우는 2.58점,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아는 경우는 2.59점, 교회 홈페이지나 책자를 통해 아는 경우는 2.8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개신교회의 낮은 신뢰도의 원인을 인터넷이나 일부 언론 매체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서 찾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과거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를 덜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언론을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접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 10. 종교를 가질 의향이나 변경할 의향 여부에 따른 신뢰도 차이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종교를 가질 생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교인지를 묻고, 이미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종교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대다수인 67%가 앞으로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14.2%는 가톨릭교, 10.6%는 불교, 7.3%는 기독교를 앞으로 가지고 싶은 종교로 선택하였다(<그림 21>). 또한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93.6%)의 사람들이 현재 종교를 바꿀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한 3.6%의 사람들 중 35.7%는 기독교를 바꾸고 싶은 종교로 꼽았다. 작년의 결과와 다른 점은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12.4% 포인트 감소하였다는 것과, 앞으로 가지고 싶은 종교에서 기독교가 가톨릭교와 불교 다음으로 순위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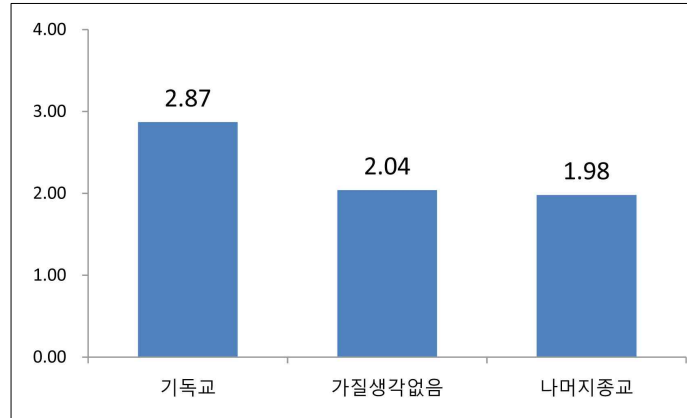
또한, 위의 결과와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연결하여 각기 다른 종교 선호를 가진 사람들에게 따라 신뢰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앞으로 갖고 싶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아서 2.87점이었고, '앞으로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2.04점이었다. 특히, 기독교 이외의 나머지 종교를 선호한 사람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9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그림 22>).

<그림 21> 종교를 가질 의향과 종교 선택 분포





<그림 22> 가지고 싶은 종교에 따른 교회 신뢰도



## 11.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

한국 개신교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5점 척도의 신뢰도를 종속 변수로 둔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령, 종교, 성별, 소득수준, 개신교회에 대한 관심의 수준, 학력,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sup>8)</sup> 등의 변수가 실제 신뢰도의 크기를 결정짓는 유의미한 변수인지, 그리고 유의미한 변수들 가운데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이 회귀분석의 목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의 일곱 가지 변수가 개신교회의 전체 신뢰도(Model 1),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Model 2), 개신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Model 3),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Model 4)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네 모형에서 각 모형의 설명변수는 일곱 가지로 동일하며, 종속변수에만 차이를 두었다.

먼저 아래 <표 5>의 Model 1은 각 개인의 특성과 개신교회 전체 신뢰도와 관계를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 개신교인일수록, 개신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신뢰할수록 개신교회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젊은 연령층에 비해서 60대 이상인 사람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들의 계수를 비교할 때, 종교가 기독교인지의 여부가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기독교인들의 교회 신뢰도는 3.66점으로 비기독교인의 신뢰도인 2.34점보다 약 1.32점 정도가 크다. 그리고 최종학력이 중졸인 사람들에 비해서 고졸인 사람들의 교회 신뢰도는 0.29점 낮게 나타났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졸인 사람들의 신뢰도는 0.44점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 차이는 0.47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심(소통) 여부 또한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사람과 관심이 많다고 답한 사람과의 신뢰도 차이는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뢰도 0.85점의 차이를 가져온다. 작년의 회귀결과를 보면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뢰도 차이가 0.67점이었으므로 올해의 신뢰도 차이는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교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통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연령, 종교, 성별, 소득수준, 학력은 가(dummy)변수로 두어서 각 범주가 신뢰도의 크기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신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정보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반면 개신교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변수를 사용하여 관심이 많다, 보통이다, 관심이 없다는 세 범주가 개신교회의 신뢰도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예수에 대한 신뢰의 정도 역시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세 범주가 개신교회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표 5> 신뢰도의 결정요인

설명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AGE20	0.05	0.55	0.05	0.53	0.00	0.03	-0.06	-0.54
AGE40	0.14	1.49	0.02	0.20	0.13	1.34	0.11	1.12
AGE50	-0.08	-0.81	-0.03	-0.35	-0.02	-0.21	0.06	0.57
AGE60	<b>0.31</b>	<b>2.56**</b>	0.23	1.90	0.21	1.58	0.16	1.17
Prot	<b>0.70</b>	<b>7.36***</b>	<b>0.70</b>	<b>7.35***</b>	<b>0.90</b>	<b>8.71***</b>	<b>0.66</b>	<b>6.15***</b>
Catho	0.02	0.16	0.08	0.66	-0.04	-0.30	-0.12	-0.84
Budis	-0.10	-0.99	0.07	0.68	0.03	0.24	-0.10	-0.92
Male	-0.01	-0.12	0.00	0.03	-0.05	0.77	0.08	1.06
INC200	0.10	0.94	0.16	1.59	0.15	1.37	-0.05	-0.39
INC300	0.01	0.11	-0.00	-0.01	-0.04	-0.39	-0.17	-1.43
INC400	0.03	0.28	-0.06	-0.65	-0.02	-0.21	-0.14	-1.26
Inter	<b>0.39</b>	<b>4.18***</b>	<b>0.34</b>	<b>3.66***</b>	<b>0.25</b>	<b>2.47**</b>	<b>0.36</b>	<b>3.49***</b>
Nointer	<b>-0.46</b>	<b>-5.94***</b>	<b>-0.42</b>	<b>-5.32***</b>	<b>-0.44</b>	<b>-5.11***</b>	<b>-0.50</b>	<b>-5.72***</b>
EDU2	<b>-0.29</b>	<b>-2.08**</b>	<b>-0.25</b>	<b>-1.77*</b>	-0.13	-0.83	-0.11	-0.70
EDU3	<b>-0.44</b>	<b>-3.11***</b>	<b>-0.37</b>	<b>-2.61***</b>	<b>-0.34</b>	<b>-2.21**</b>	-0.24	-1.50
Trust	0.12	1.46	0.10	1.13	0.05	0.54	<b>0.19</b>	<b>1.95*</b>
Notrust	<b>-0.35</b>	<b>-4.02***</b>	<b>-0.38</b>	<b>-4.31***</b>	<b>-0.35</b>	<b>-3.62***</b>	-0.10	-0.98
R <sup>2</sup> (Adj R <sup>2</sup> )	0.37 (0.36)		0.34 (0.32)		0.33 (0.31)		0.29 (0.28)	

Note: \*  $p < 0.10$ ; \*\*  $p < 0.05$ ; \*\*\*  $p < 0.01$

설명변수: AGE20(만 19~29세), AGE40(40대), AGE50(50대), AGE60(60대 이상), 기준더미(30대); Prot(개신교인), Catho(천주교인), Budis(불교), 기준더미(종교없음); Male(남자), 기준더미(여자); INC200(월소득200~299만원), INC300(월소득300~399만원), INC400(월소득400만원이상), 기준더미(월소득199만원이하); Inter(개신교회관심있음), Nointer(개신교회관심없음), 기준더미(개신교회관심보통); EDU2(고졸), EDU3(대졸이상), 기준더미(중졸이하); Trust(예수님신뢰함), Notrust(예수님신뢰안함), 기준더미(예수님신뢰보통)

그 다음으로 세 개의 모형들(Model 2, Model 3, Model 4)은 각각 개인의 특성과 개신교인, 개신교회 지도자, 그리고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와 관계를 보여주며 이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기독교인은 전체 신뢰도와 각 개별요소 신뢰도 모두를 비기독교인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만 그 정도는 다르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각 개별요소의 신뢰도에 주는 정(positive)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면, 0.90점(지도자에 대한 신뢰) > 0.70점(교인에 대한 신뢰) > 0.66점(교회활동에 대한 신뢰)이다. 이는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기독교인은 교회 지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이는 반면 교회 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을 보여준다. 작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정의 효과 순위는 동일하지만 그 크기에 있어서 개신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요소들에 비해 더 크게 증가했다.

둘째, 예수님에 대한 신뢰 정도와 교육 수준이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두 요소(개신교회 목사 및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 여부는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에 약 0.48점의 차이를 가져온다. 한편, 예수님에 대한 신뢰 여부가 개신교회 지도자의 신뢰도에 주는 영향은 0.4점이며 개신교회 활동의 신뢰도에 주는 영향은 0.29점으로 나타났다. 즉,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작년의 결과와 달리, 올해에는 교육 수준이 개신교인과 개신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최종 학력이 중졸 이하인 사람들에 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졸 이상인 사람들의 신뢰도가 0.37점 가량 낮게 나타났다. 교육 기간이 늘어날수록 개신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생각해 볼만한 점이다.

셋째, 개신교회에 대한 관심(소통)이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두 개별요소(개신교인 및 개신교회 지도자)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개신교회에 대한 관심

의 여부는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에 약 0.86점의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교회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개신교인의 신뢰도에 주는 영향은 0.76점이며 개신교회 지도자의 신뢰도에 주는 영향은 0.69점이다. 작년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개신교인의 신뢰도에 주는 영향이 다른 두 요소에 비해 더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작년에는 교회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개신교인의 신뢰도에 주는 영향이 0.59점인데 반해 올해는 약 0.17점 가량 증가하였다. 또한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에 주는 영향은 0.13점 가량 증가하였다. 교회와의 소통이 개신교인과 개신교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채널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교인과 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언론에 보도된 주요 사건과 신뢰도

이상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신뢰도 차이의 주된 이유로서 소통의 문제,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과 행동의 문제를 들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난 연도의 조사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언론에 긍정적, 부정적으로 보도된 사건들과 소통의 문제, 혹은 기독교인의 삶 및 행동의 문제를 관련시켜 보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신교회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개신교회와 관련된 보도 가운데 주요 언론에서 다룬 사건들, 그리고 댓글이 많거나 복수의 언론에서 취급하여 파장이 큰 사건들을 선별하였다. 이 사건들과 이들이 소통의 문제 때문에 제기되었는지, 아니면 기독교인의 삶과 행동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이 양자 모두 관련이 있는지를 다음의 표와 같이 살펴보았다.9)

<표 6> 개신교회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

사건들	일자	소통의 문제	개신교인들의 삶과 행동의 문제	(비개신교인) 신뢰도에 영향
김 모 목사 박근혜 비판	2009.12.20	√	√	-
용산 참사 해결 교회봉사단 활동	2009.12.30		√	+
사랑의교회 건축	2010.1.7	√	√(?)	-
T-개발원 조목사 성폭력 사건	2010.1.16		√	-
캐나다 한인 교회 성폭력 제소 사건	2010.3.20		√	-
거지가 된 기자	2010.5.29		√	+
목사가 아들 친구 폭행	2010.6.25		√	-
이영표 자선축구	2010.7.4		√	+
아프간 피랍 샘물교회 인질들, 가족들이 수역원 내고 구출	2010.7.23	√		-
개신교 목사 리비아에서 구속	2010.7.24	√		-
아프간 샘물교회 유족 국가 상대 손해소	2010.7.27	√		-
육한흠 목사 장례식	2010.9.6		√	+
기독교인 봉은사에서 땅밟기	2010.10.27	√	√	-
삼일교회 목사 성스캔들 의혹	2010.11.2		√	-

9) 각 사건들이 보도된 주요 언론 매체와 댓글 등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김 모 목사 박근혜 비판 : 조선일보(댓글 223개), 동아일보(댓글 88개). \* 용산 참사 해결 교회봉사단 활동 :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 사랑의 교회 건축 : 조선일보(댓글 37개), 중앙일보(댓글 69개). \* T-개발원 조목사 성폭력 사건 : 조선일보(댓글 53개), 중앙일보 \* 캐나다 한인 교회 성폭력 제소 사건 : 중앙일보(댓글 15개). \* 거지가 된 기자 : 조선일보(댓글 99개). \* 목사가 아들 친구 폭행 : 조선일보(댓글 97개). \* 이영표 자선축구 : 조선일보, 다음(댓글 231개). \* 아프간 피랍 샘물교회 인질들, 가족들이 수역원 내고 구출 : 조선일보(댓글 81개). \* 개신교 목사 리비아에서 구속 : 다음(댓글 1039개 - 2010년 7월 24일 2010년 12월 12일 현재 삭제). \* 아프간 샘물교회 유족 국가 상대 손해소 : 조선일보(댓글 318개). \* 육한흠 목사 장례식 : 연합뉴스 조선일보 \* 기독교인 봉은사에서 땅밟기 : 연합뉴스 다음 댓글 1순위. \* 삼일교회 목사 성스캔들 의혹 : 연합뉴스 조선일보

<표 6>을 살펴보면 개신교회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14개의 주요 사건 중 4개의 사건은 긍정적 효과를, 나머지 10개의 사건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회 신뢰도를 하락시켰을 수 있는 10개의 사건을 소통의 문제, 개신교인들의 삶과 행동의 문제, 혹은 이 양자 모두의 문제로 나눠 보면 각각 3건, 4건, 3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소통의 문제만으로 야기된 3건에 대해서는 개신교인들의 잘못에 기인하기보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 혹은 개신교회와 사회의 시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7건의 사건들은 개신교인들의 삶과 행동에 분명한 문제가 있거나 있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들이다. 이 7건 중 4건은 성 혹은 폭력과 관련된 문제, 1건은 한 목사의 정치적 발언(김 모 목사 박근혜 비판), 또 1건은 타종교에 대한 공격적 행위(기독교인 봉은사에서 땅밟기), 마지막 1건은 대형교회의 교회당 건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이 있다.

개신교회의 신뢰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 10개 중 소통의 문제와만 관련된 3건, 여기에 사랑의교회 건축 1건을 더한 4건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나머지 6건은 불가피한 경우라기보다 개신교인의 삶과 행동의 문제에 연유한 것이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관찰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언론보도를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개신교회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것이며 그 이유로서 교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 문제를 자연스럽게 거론할 것이다. 이는 비교적 언론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 계층들, 예를 들어 블루칼라 근로자와 저소득층에서의 교회 신뢰도가 작년에 비해 더욱 크게 하락한 조사 결과와 부합되는 것이다.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네 가지 사건 중 세 사건은 개인 혹은 개별 교회적인 수준에서 시작된 반면 한 사건, 즉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교회봉사단 활동만 교회 연합 수준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는 여러 개신교회나 교단이 연합하여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교회신뢰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활동들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한다.

## IV. 결론 및 맺음말

2008년 시작된 교회신뢰도 조사는 2010년 올해의 조사로서 본래 계획한대로 세 번의 조사를 마치게 되었다. 세 번 동일한 주제와 내용의 조사를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신교회 신뢰도의 수준에 대해 보다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이 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 개신교회는 낮은 신뢰도의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신뢰도 하지 않고 불신도 하지 않는 수준”인 3을 하회하여 3년 계속하여 2.5-2.9점에 머무르고 있다. 2008년에는 2.55점에서 작년에는 2.82점으로 상승하였지만 올해는 다시 2.58점으로 하락하였다. 즉 2009년의 유의미한 반등 추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2008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와 같이 3년 동안 계속 2.5-2.9의 범위에 머무른 것은 개신교회의 낮은 신뢰도가 어떤 특정한 사건의 영향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한국 교회의 건강성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임을 암시한다.

둘째, 비기독교인의 개신교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개신교회 성장에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톨릭과 불교 교인들 중에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심지어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다른 두 종교 기관 보다 개신교회를 현저히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회 기관 사이의 비교에서도 비기독교인이 평가한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시민단체, 언론기관, 정부, 사법

부, 개신교회, 입법부의 순으로 개신교회의 신뢰도 수준은 신뢰도가 가장 낮은 입법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신교회가 일반 사회와 이웃과 유리된 채 “우리들만의 세계”가 되고 있지 않은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를 반영하여 종교가 없는 사람들 중 갖고 싶은 종교에서도 개신교는 가톨릭과 불교에 뒤쳐 세 종교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셋째, 2010년의 교회신뢰도 조사 결과는 현 정부의 국정 지지도와 교회신뢰도는 큰 관련이 없음을 시사한다. 작년의 개신교회의 신뢰도가 유의미한 상승을 보인 이유 중 하나로 현 정부의 국정지지도 상승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즉 한겨레신문(2008.9.8일자와 2009.11.2일자 참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는 1차 신뢰도 조사 직전인 2008년 9월 23.5%에서 2차 신뢰도 조사 직전인 2009년 9월에는 45.3%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지지도는 3차 신뢰도 조사 직전인 2010년 10월, 50%를 상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교회신뢰도 조사 결과 개신교회의 신뢰도가 하락한 것은 현 정부와 개신교회를 연관지어 판단하는 일반 국민들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개신교회의 낮은 신뢰도는 교회 내부의 문제, 특히 기독교인들의 삶과 행동의 문제, 그리고 소통의 부족에 기인한다는 평가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분석은 한국 교회가 다시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돌아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교인들의 올바른 삶과 행동은 온전한 영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기독교인의 영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삶과 행동에 차별성이 없고 그 결과 비기독교인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평가도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한국 교회들이 그 동안 추구해온 교회 성장 위주, 특히 수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정책을 내려놓아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한 결과 교인들의 삶과 행동, 그리고 영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설교와 프로그램은 줄어드는 반면 복음의 진중성을 타협한 설교, 심지어는 재미있고 부담없는 인기영합 위주의 설교와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교회로 모으려 했던 결과가 개신교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이어진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회가 다시 건강해 지려면 교인 수 증가보다 교인의 영적, 윤리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목회가 요청된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다양한 문화 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교회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이 쉽게 교회 밖으로 전해지고 그 결과 교인들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반드시 교인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이전에는 종교적인 공간과 사회적인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던 반면 현재에는 이 둘을 분리하는 장벽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개신교회는 설교라는 다중을 상대로 한 뚜렷한 전달 메커니즘이 있고 이 내용 안에는 신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더욱이 많은 교회에서 이를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회는 다른 종교 기관보다 훨씬 더 공공의 감시와 비판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두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던 시대의 타성과 관행에 젖어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무분별한 정치적 언급과 사회적 몰이해에 비롯된 전도 행위들이 한국 개신교회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만약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인격적 배려, 다른 종교기관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없이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는 개신교회의 신뢰도를 더욱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보다 한국 개신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 시점에서 한국 개신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독교인을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교회의 수적인 성장에 치중하면서 바른 영성과 삶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회는 신뢰받지 못하는, 거품이 가득한 종교 기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역으로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가 사회와 접촉하는 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기제를 찾아야 한다. 이전에는 설교와 전도는 종교적 행위이며 교회와 사회의 접점은 주로 사회봉사, 구제의 영역에

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허물은 쉽게 가려질 수 있었고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기가 수월했다. 그러나 지금은 설교와 전도도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교회지도자들의 무분별한 정치적 언급, 기복주의적 축복론 등의 내용들은 쉽게 소개되는 반면 교회가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현재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고리들은 많이 단절되어 있다. 이전 혹은 지금 연로한 세대에서는 교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존경받는 분들이 있었다. 이런 분들이 교회와 사회의 소통 뿐 아니라 개신교회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 비교적 젊은 세대에는 교계와 사회를 아울러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개신교계 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도 많다.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이 개신교회와 그 활동을 불충분하게 알고 있거나 심지어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만약 이전의 인물 중심의 소통 방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다른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전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담당하는 기독교 학교,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독교 연구 기관, 교회와 사회를 잇는 기독교 언론 매체 등의 설립 혹은 발전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신교회가 변화한 시대에 걸 맞는 효과적인 사회 소통 방식을 찾지 못하면 개신교회의 신뢰도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셋째, 국내에서의 공격적인 전도 활동, 혹은 다른 종교와 이웃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기독교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시기에는 익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전도활동을 벌이는 것이 전도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점에서 개신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교회가 믿을 만한 종교 기관이 되는 것이며 기독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개신교회와 기독교인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훌륭한 삶과 행동을 보고 접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은 이웃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 이전에 사랑과 존경의 대상, 섬김과 배려의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넷째, 훈련된 교인들을 교회 안에 가두지 말고 세상으로 내 보내야 한다. 교회와 사회의 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소통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즉 교인들이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삶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여야 소통의 창이 열릴 터인데 교회 내 프로그램이 과다하고 또 교회 활동을 사회생활 보다 더 강조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열심히인데 사회에서는 무력한” 기독교인이 양산되고 있다. 즉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세상으로 내보내는 훈련소가 되어야지 참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기독교 세계관 혹은 가치관의 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인들의 왜곡된 성경 해석, 사회와 교회 혹은 사회 문제에 대한 몰이해 등은 개신교회의 신뢰도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봉은사 땅 밟기 사건이 그 대표적 예이다. 교회는 다니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자신들의 테두리 내에서만 해석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서 이를 무리하게 적용한 결과인 것이다. 한국 교회,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들이 하는 설교나 행동의 일부가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교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여섯째, 노회, 총회 혹은 개신교회 연합 기구 차원에서 개별 교회에 대한 감독과 도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삶과 윤리 수준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묻는 설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짐작컨대 일반 국민들의 윤리 수준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윤리 수준, 그리고 개신교나 가톨릭,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윤리 수준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회의 신뢰도가 다른 종교기관 보다 낮은 중요한 이유는 개신교회가 지나치게 분권화된 것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개신교회에서는 개별교회 위주로 운영되고 따라서 교회지도자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교회이다. 따라서 교회지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그 교회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교회 지도자 자신에게 큰 손실은 없다. 이러한 환경은 상대적으로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가톨릭이나 불교에 비해 개신교회의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사건을 일으킬 확률을 증가시킨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단의 노회나 총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개별 교회에 대한 감독과 치리를 엄격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국가에서 정부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형태의 중앙 집권적 구조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교회나 교회지도자들은 징벌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교회나 교회지도자들은 보조하는 식의 교회 지배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개교회주의를 버려야 한다. 개교회주의는 어떤 교회가 그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나 사회에 모범이 되려는 인센티브는 감소시키는 반면 그 교회의 교인 수의 증가를 최우선으로 삼으려는 인센티브는 증가시킨다. 한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면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여 기독교인 수 자체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교인들은 그 교회에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이유 등 여러 이유로 다른 교회로 많이 분산될 것이다. 즉 모범적인 교회가 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다수의 교회가 나누어 갖는다. 반면 설교나 교회 행사, 프로그램을 교회의 교인 수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 성공하면 그로부터 오는 이익은 그 교회가 다 향유하게 된다. 현재 한국 교회가 과연 성경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교회를 추구하고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그리고 우리 사회에도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인 수 증가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후자라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교회주의 때문이다. 개교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영적 갱신이다. 즉 하나의 개별 교회의 이익과 손해의 시각 차원을 뛰어 넘는 것이다. 한 가지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교인의 수, 혹은 재정 수입에 비례하는 누진율을 부과하여 공익적 목적, 예를 들면 사회의 약자, 농어촌 교회, 해외 선교, 교회연합활동에 그 수입을 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3년 간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는 한국 교회가 저신뢰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 신뢰도의 위기는 향후 개신교회의 수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교회들이 개교회주의를 강화하고 공격적인 전도를 통해 더욱 수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면 이는 교회 사이에 교인 수를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교인들을 세상에 파송하기보다 교회 안으로 가두려는 경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교회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매우 참담할 것이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웃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한국 개신교회가 신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기윤실이 주관했던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 연구가 바로 이러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운동을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주 제 발 제 ①

# 한국 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본질적 고민과 제언

2008~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김 형 국 목사(나들목교회 대표목사)

연세대 사회학과와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M.Div, 신약학 Ph.D)에서 공부했으며,  
IVF 간사와 사랑의교회에서 사역했으며, 현재 나들목교회 대표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 I.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된 것이었다.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할 때도 이러한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 한국 교회의 교세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자,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이런 저런 지적들이 이루어졌다. 교회 내에서만 주로 지적되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일군의 사회과학자들이 한국의 종교 권력에 대한 비평을 제기 하였던 2000년 전후로 부터였다.<sup>1)</sup> 이 이후부터 한국의 언론 매체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권 력화한 삼대 종교를 비판하는 시사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의 정기적으로 이런 이슈를 다 루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이 발제를 통해, 2008년부터 3년에 걸쳐 조사된,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를 근간으로 하여, 한국 개신교 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지금까지의 문제 분석과 제안을 돌아보고, 심각한 수준의 신뢰도의 본질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 II. 2008-2009년의 조사 결과와 2010년 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 1. 2008-2009년 조사 결과와 2010년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들

지난 2008년과 2009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와 잇따 른 세미나를 통해, 한국 교회 신뢰도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과학적이고도 치밀하게 이루어진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었다.

약간의 문항 침삭과 함께 진행된 2010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약간의 변동 사항들이 있지만, 대 체적으로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주목할 만한 변화는 많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은 사회적 약자 인 저소득층과 블루칼라층, 남자, 그리고 개신교층에서 신뢰도가 하락한 것이다. 심각한 것은 2008년과의 비교

1) 당대비평 12 (2000)은 쟁점으로 “권력으로서의 한국 종교”를 다루고 한국의 삼대 종교의 종교 권력화 현상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 받고 집중 연구된 것은 한국 개신교였다. 비슷한 시기 언론학자인 강준만도 한국 개신교에 대한 분석 을 했다(인물과 사상 16).

를 통해 개신교 신뢰도는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층이 26.6%에서 30.8%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응답자에게 신뢰도의 감소 이유를 주관식으로 물었더니, 줄곧 제기되어오던 문제(언론에서 부정적 이미지, 언행일지 모습 보지 못해, 교인들의 비윤리적 행동) 외에 타종교에 대한 편파성(7.7%), 교회의 전도 유치활동이 심해서(6.4%), 돈에 집착해 이익만 챙기므로(5.5%), 자기 중심적이라서(5.0%), 정치적으로 너무 치우쳐서(4.9%) 등의 주의를 끄는 답변이 나왔다.

다른 종교에 대한 호감도도 가톨릭교, 불교가 2009년에 비해 상승한 것에 비교해, 개신교는 크게 하락했다. 가톨릭교의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고 포기 의향도 큰 변화가 없는 것(0.3% 증가)에 비해, 개신교는 호감도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종교 포기 의향은 2009년의 1.8%에서 2010년 5.7% 대폭 상승했다.<sup>2)</sup> 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에 대한 신뢰도가 교회의 신뢰도와 함께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신교의 신뢰도 개선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할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타종교에 대한 관용으로 3년간 25.8%, 20.55%, 29.7%의 변동을 보이지만, 주요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 2. 조사 방법론의 성과와 한계

지난 3년간의 조사는, 한국 교회 개신교의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회 조사의 한계 상, 1년 중 특정 기간 2-3일 동안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sup>3)</sup>, 조사 직전 대중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사건이 일어나면, 조사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2008년 아프가니스탄 선교팀 문제나 이랜드 문제, 그리고 2010년 봉은사 땅밧기 등 불교계와의 마찰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 한 해의 정확한 신뢰도를 몰으려 하면, 1년간 수차례 조사를 해서 종합해야 한다. 현재 조사의 한계를 고려할 때, 조사 결과의 변화의 폭을 추적하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2009년 대중 매체가 한국 교회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보도한 것<sup>4)</sup> 이로 인해 개신교인들 중 일부가 낙관적 전망을 가진 것은 염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신뢰도 하락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이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 3. 2008-2009년의 원인분석과 제안

2008-2009년에 이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치밀한 원인 분석과 그 제안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0년의 결과 분석도 그 전년도들의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여전히 한국 개신교의 문제이며 과제이기 때문이다.

2008-2009년의 조사를 통해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공통적 원인 중 첫 번째는 소통의 문제이다. 세 가지 측면에서 소통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김병연 교수의 경우, 비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개신교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소통의 문제를 언급했다.<sup>5)</sup> 이 외에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기독교의 소통방식, 즉 기독교의 배타성 그리고 공격적인 전도 활동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sup>6)</sup> 더불어 미디어를 통한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과 전략적인 홍보 및 이미지 형성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많은 이들이

2) 비록 불교가 종교 포기 의향이 0.9%에서 8.1%로 상승했지만.

3) 2008년 10월 23-27일 2009년 9월 28-29일 2010년 11월 8-10일 등 주로 1년 중 후반부에 조사되었다.

4) CBS 2009-11-11; 조선일보 2009-11-12; 문화일보 2009-11-16

5) 김병연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자료집(인터넷판)", p. 29, 35.

6) 이숙중, 위의 글 p. 42

이문식, 위의 글 p. 51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이 또한 소통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열린 자세로 적극 소통할 것<sup>8)</sup>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타종교와 이웃들에게 거부감을 줄 만한 전도 활동을 삼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회와 교회지도자 및 교인들에 대한 윤리적 탁월성의 결여가 많은 부분에서 핵심적 문제로 지적되었다.<sup>9)</sup> 이에 대한 제언으로서는 교인과 지도자들의 언행일치(2008, 김병연), 교회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통한 개인윤리 증진(2008, 이숙중),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2008, 임성빈), 윤리 목회(2008, 한기채), 교인들의 인격 함양과 윤리성 제고(2008, 이문식) 등이 언급되었다. 더불어 교회 운영이나 선교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제언들이 언급되었는데, 교회재정이나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목사도 소득세를 내는 등의 방안(2008, 이숙중), 교회 운영의 합리화(2008, 임성빈), 교회 재정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2008, 한기채), 교회재정을 통한 선교활동(2008, 이숙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교회주의 또한 거듭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sup>10)</sup>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섬김, 그리고 ‘열린 교회’의 추구를 통해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교인들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이문식 목사가 주장한 대안적 공동체성의 실현<sup>11)</sup>도 개교회주의의 덫에 걸린 한국 교회에 대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Ⅲ. 신뢰도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지난 2년 동안의 세미나를 통해서 분석된 문제의 원인과 제언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도움이 되지만, 본 발제자는 이 심각한 수준의 신뢰도의 문제는 단지 대중 매체를 통한 이미지 향상, 다양하고 긍정적 소통의 개발, 윤리의식의 심화, 개교회주의의 극복 등으로는 작금의 현상을 개선시키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한국 개신교의 신뢰도 문제는, 현재 개신교 교회와 교인이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또 어떻게 교회와 개인의 삶을 꾸려나가며, 또한 사회 속에서 다른 종교, 다른 집단과 어떻게 공생하느냐 등, 매우 본질적인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1. 복음의 특정성과 복음적 삶의 포용성

먼저 개신교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특정성(particularism)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수가 구원과 삶의 유일한 근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는다면, 이러한 특정적 자세, 곧 진리에 있어서의 배타적 자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타적 자세를 갖지 않아도 되는 보편주의적(universalism) 입장일 경우, 이웃이나 타종교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질 수 있지만, 한국 개신교인들 대부

7) 한기채 위의 글 p. 47

조성돈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자료집(인터넷판)”, p. 57

8) 김병연 위의 글 p. 38

이숙중 위의 글 p. 42

9) 김병연 위의 글 p. 29

이숙중 위의 글 p. 41

한기채 위의 글 p. 46

이문식 위의 글 p. 51

10) 김병연 위의 글 p. 38

한기채 위의 글 p. 46

김병연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자료집(인터넷판)”, p. 51

11) 이문식 위의 글 p. 51

분이 특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특정성의 성서적 배경과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한다. 단지 배타적으로 주장하기만 할 경우, 그 누구와도 대화가 불가능하게 된다. 대화 가능할 정도로 내면화되고 지성적 설득을 결여한 주장은 사회적으로 갈등만 일으킬 뿐이다.

사실, 지난 2천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윤리적 탁월성을 가지게 하였던 원인도 여러 모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여기고 그의 가르침에 순복한 것이었음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복음서가 증거하는 예수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또 그 예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윤리성을 기대하는 것과 큰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음의 특정성이 내면화되면, 예수가 가르치는 사회 윤리의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황금률, 원수와 꺾박하는 자에 대한 태도, 의를 위한 삶, 무엇보다도 용서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은 개신교인들에게 높은 권위로 다가간다. 다른 종교와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사회의 덕목은, 시민사회 속에서 개신교가 이제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실인즉 예수의 사회 윤리적 가르침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복음적 삶은 사회적 약자는 물론,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신교인들의 신뢰 향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시급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지성적이며 실제적인 성찰이고, 이에 따른 진실하고 적절한 사회적 삶이다.

## 2. 공동체로서의 교회 회복

### a. 예배 집단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교회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추어지는가에 대하여 이미지 제고,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자체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신학 교과서에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는 애시 당초 공동체였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점점 일요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집단으로 전락(!)하여 버렸다. 그러니 초대 교회 뿐 아니라, 지난 2천년 간 건강한 교회 속에서 늘 나타났던 자신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나,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공동체의 원리도, 그리스도인들끼리 공동체를 제대로 형성해 사랑할 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하나님에 대한 추구 욕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요일에 가는 교회”는 공동체일 수 없으며, 이런 방식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연습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다. 이런 공동체가 교회 밖의 정치, 경제, 심리, 정서적,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결코 일반 사회사업 기관이 행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한국 사회 사망 원인 1위가 된 자살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 없이, 자신의 교인들도 자살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 무지하고 무대책인 교회가 될 수 밖에 없는 한국 개신교의 교회는, 무엇보다 성경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 조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블루칼라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교회 내의 사회적 약자와 블루칼라에 대한 자세와 연관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의 탁월한 가르침 중 하나인 고통에 대한 가르침을 개신교회가 회복하고, 진지하게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니, 자신의 공동체 속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회 내에서 고통을 다루지 못하며, 세상 속의 고통을 치유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b. 교회 공동체 내의 문제 해결 능력

성경의 그리스도인이나, 공동체가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탁월한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인과 그 공동체가 탁월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데 있지 않을까?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으로 탁월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숙하고, 회개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이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에 실패한 것보다 더 큰 실패는 공개적 회개가 상실된 모습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나 교단이, 그리고 당사자가 회개하고 치리하고 치리를 받는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다. 성경적 의미에서, 건강한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치리가 무엇인지 실종되었으니, 교회 공동체는 자체 내의 문제 해결 능력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삼대 종교 중에서 가톨릭교의 자체 충실도가 100%이고 포기 의향도 0.3%만 증가한 반면, 개신교의 자체 충실도가 77%이며, 포기 의향이 4% 가까이 증가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자체의 문제와 이 문제의 해결 능력 결여를 경험하고 있는 것도 중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자정 능력을 상실한 공동체이니, 외부인들에게 조롱거리나, 기껏해야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 c. 젊은 세대의 중요성과 대안적 실험

젊은 세대에서 개신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공동체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면, 현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함께 고민하고 풀어갈지 그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그러나 소위 “모태 신앙”이라 불리는, 많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입시 준비로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겨우 겨우 다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도 함께 졸업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교회를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sup>12)</sup>가 되는 시점과 젊은이에 대한 교회의 무대책은 무관하지 않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젊은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우리의 내일로 여겨, 끊임없이 대안적 실험을 하여야 한다. 이미 익숙해진 종교적 형식과 문화적 틀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간다. 교회 내의 젊은이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 사회 전반에 젊은이들로부터 신뢰도를 잃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 3.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교회의 사명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먼저 교회 공동체 자체 내에서의 과업을 성취하고 있을 때, 교회는 좀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안을 제안하고, 문제를 풀어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 a. 타종교에 대한 자세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때, 무엇보다도 타종교에 대한 건강한 자세를 갖출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기독교의 특정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타종교와 공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개별적 종교의 특성을 인정할 때, 오히려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도 증가할 수 있다. 모든 종교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12) 2010년 <바른교회아카데미>에서 발표된 조성돈 “가나안 성도로 나타난 한국 교회의 종교성과 나아갈 방향”, 정재영 “가나안 성도 그들은 누구인가?” 참조

다른 방법론이라는 보편주의는 각 종교가 갖는 독특성을 부각시킬 수 없고, 또한 상쇄될 수 없는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봉쇄할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일정량, 인간의 탐구와 사색을 통한 진리가 있고, 기독교와도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배타적 주장만을 계속하면, 오히려 더 폐해가 크다고도 할 수 있는 세속주의에 대해 함께 싸울 친구를 잃는 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2010년 조사 결과에 타종교에 대한 편파성과 심한 교회 전도 유치활동이 나란히 등재된 것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타종교를 존중하면서도 특정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면, 전도의 방법론 또한 심각하게 재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면식 전도 방식”은 빠른 시간 내에, “삶의 양식으로서의 전도”로 바뀔 필요가 있다. 결과 중심의 전도 방식이 아닌 과정 중심의 전도,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성의 전도가 아닌, 인격적 관계로서의 전도가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한, 무례한 기독교의 이미지는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슬프게도 전도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전도의 문을 닫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본질적 고민과 이에 대한 대안들을 실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서로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 b.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서적 성찰과 실제적 섬김

성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구약의 모세오경에 강력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예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였다. 구약에서 그토록 강조하였던 “과부, 고아, 나그네”와 예수가 친구로 여겼던 “세리와 창녀”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 누구인가? 양 우리에게 있는 아흔 아홉 마리가 아니라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예수의 마음이 가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불행하게도 한국 개신교는 전반적으로 현대적 “과부, 고아, 나그네”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알더라도 혹시 홀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는 아마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생계형 경제 위기에 놓인 사람들, 성적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사회보장으로 구제되지 못하는 소외된 홀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과 장애우, 이런 저런 사회적 이슈에 소수자로서 외롭게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학생, 노동자, 배우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아닐까? 이들의 상태와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성서적 성찰이 없이, 쉽게 단죄하고, 사랑 없는 대안을 되 내이고 경제적으로 몇 푼 돕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자격 미달이다.

어떻게 이들을 섬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특별히 현대 사회가 갖는 병리적 문제나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지 그 대안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불행히도 교회 안에서도 “주홍글씨”가 두려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니, 한국 사회의 의식 있는 박애주의자들이 먼저 이런 약자들을 돕고, 시기를 놓쳐버린 개신교는 어쩔 수 없이, 훗날 그들을 섬기게 되지 않을까.

#### c. 사회 역사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성찰

이번 조사 중에 눈에 띄는 점 중 하나가, 최근 2~3년 대비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답변한 신뢰도 감소 이유 중, 교회가 돈에 집착해 이익만 챙기므로(5.5%)와 정치적으로 너무 치우쳐서(4.9%)가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개신교가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경도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좌파나 우파 한 쪽으로, 갈등에 있어서 동서와 세대간 갈등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개신교 교회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제적, 그리고 이념적 토양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종속되어 있기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역사적인 종교이다. 그들이 믿는 성경의 이야기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 역사 속에, 그리고 사회 속에 개입하였다고 믿는다. 개신교의 중심인 예수가 역사 속에 성육신하고 부활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렇기에, 기독교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의 구속사는 세속사와 함께 얽혀서 전개 되었으므로, 성경을 읽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역사의식, 그리고 사회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선지자적 전통이 사라져버린 현대 한국 개신교에서, 역사의식이나 사회의식이 결여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인문 사회 과학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역사의식,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기독교 윤리를 조금이라도 주의해서 고려하기만 하더라도, 한국 개신교의 얼굴이 신자본주의와 좌우, 지역, 세대간의 갈등을 쉽게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적지 않은 대교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이, 이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 있는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그저 시대에 종속된 현세적 종교 이상이 아닌 것으로 여긴다.

## IV. 나가는 말

우리 한국 개신교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더군다나,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짐에 따라,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한 신뢰도도 따라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다짐한 발제자로서는 참담한 마음을 피할 수 없다. 여러 진단들이 모두 필요하지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분명하지 않다면, 결국 우리의 진단과 해결책이, 역시 비교 종교적인 입장이나,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정도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제안된 몇 가지를 고쳐서 우리의 해묵은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 개신교가 심각한 것은 교인의 수가 적어지고 교세가 약화되고, 사회적인 신뢰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다. 개신교가 믿는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진실성과 실제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한국 개신교는 기껏해야 시민사회 일원, 다원주의 사회 속에 공존할 수 있는 일개 종교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한국 개신교 신뢰도에 대한 본질적 고민과 제언을 마치면서, 한국 개신교가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인간적 비판론이 마음 속을 파고든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성경의 오래된 가르침을 되새길 수 밖에 없다. 암울한 역사 사회적 상황에서 작은 겨자씨가 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작은 겨자씨,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시간이 걸리고, 당장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하더라도, 한국 개신교가 마음에 둘 일이라. 



# 201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교회 평가 및 신뢰도 향상 방안

지 용 근 대표이사(주) GH코리아, 본 조사 진행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한미준에서 실시한 한국개신교인의 종교의식조사 기획/진행, 개신교 관련 약 100여건의 조사 진행함.  
한국갤럽 연구본부장을 거쳐, 현재 주)GH코리아(구 글로벌리서치) 대표이사임.

## I.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교회 평가

### 1. 신뢰도 측면

지난 3년간 한국교회의 신뢰도 측정을 해오면서 조사연구팀은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17%~19%의 매우 낮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2010년도 이번 조사의 경우 한국교회 신뢰도는 17.6%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지난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변화를 질문한 결과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 4.6%,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 30.8%로 점점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상을 해 보게 된다.

일반 기업체에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할 경우 어느 제품의 소비자 신뢰도가 20% 아래의 낮은 결과가 나왔다면 아마도 그 제품은 치열한 경쟁시장 하에서 바로 시판을 포기해야만 할 것이다. 사실 조사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나 제품 또는 사람 같은 어떤 대상을 평가한다고 할 때 이번에 나타난 한국교회 신뢰도를 단순 숫자만 갖고 평가한다면 시장(사회)에서 경쟁할 수 없는 곧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다시 말해 큰 혁신과 변화가 시급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번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현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전체 17.6%의 신뢰도를 각 계층별로 살펴보겠다.

첫째, 연령별 신뢰도의 차이점이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신뢰도가 낮고,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20대 저 연령층의 경우 11.5%만이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60대 이상 고 연령층은 29.0%였다. 단순히 이 두 계층 간 신뢰도만 보더라도 우리는 한국교회의 구성원 구조가 밑에서부터는 유입이 제대로 안 되는 반면,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교회전체가 노령화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2년 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20대층의 경우 13.4%에서 11.5%로 1.9% 포인트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세대의 주역인 20대 젊은 층에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우리가 보는 매우 심각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발견사항은 한국교회 신뢰도가 대졸이상,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소득수준별로 199만원 이하 21.6%, 200-299만원 16.6%, 300-399만원 18.6%, 400만원이상 14.7%였으며, 학력별로는 중

줄이하 31.1%, 고졸 19.0%, 대재이상 14.7%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 고소득층은 결국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층에 가까운 계층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사회를 이끌고 있는 주도적 계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2~3년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질문에서도 고소득/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신뢰도 하락률이 더 크게 나타났다.

세 번째는 종교간의 차이점이다. 개신교인이 개신교를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개신교인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비율이 59.0%인 반면, 가톨릭교인은 10.7%, 불교인은 8.8%, 무종교인은 7.6%로 10% 안팎의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무종교인의 절대다수가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위와 같은 결과는 한국교회의 전도 1차 타겟이 무종교인이라 할 때, 전도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는 사인(Sign)이라 할 수 있다(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통계치가 80% 이상인 경우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90% 이상인 경우 '절대다수'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한다).

## 2. 신뢰도 하락 요인

한국 근대화에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국교회가 1세기가 지난 지금 이렇듯 심각하게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 국민들은 교회지도자들과 개신교인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과거보다 더 적어진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교회지도자(교인)들의 비윤리적 행동/언행불일치(30.5%), 언론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많이 접해서(18.6)라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으로 '교회지도자'라는 목소리가 28.3%로 1위로 나타났다. 특히 오피니언 리더층이라 볼 수 있는 고소득/고학력층에서 교회지도자 지적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돈에 집착한다', '지나친 전도활동', '이기적이다', '재정사용의 불투명성', '사랑의 부족', '교인들이 자기들 교회 안으로만 파고들어서', '성경을 지키지 않아서' 등이 지적됐다. 그동안 언론에서 비춰진 한국교회의 비리, 부패, 교회지도자들의 비윤리성 등은 일반국민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어왔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개교회주의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물질만능주의, 사회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회리더십들의 행정력 부재, 그리고 일방적인 보수/권위주의로 인해 신세대 유입률 하락 등이 신뢰도를 상승시키지 못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한국교회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제언

### 1. 리더십의 변화

기업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하는 여러 기준점들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평가기준 중에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CEO다. CEO는 그 기업의 처음과 끝이다. CEO가 누구냐에 따라 그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원칙을 갖고, 얼마만큼의 지식력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는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교회처럼 Non-profitable 조직에서는 기업과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한국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국민들

이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지도자'들을 뽑은 점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고학력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은 4년 학교 다니는 것도 부족해 중간에 휴학하고 미국이나 유럽에 어학연수를 다녀온다. 기업체 취직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영어를 잘 하는 게 취직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수많은 한국교인들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최고 수준의 선진국에 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합리적인 삶의 방식을 배워 자신의 가정과 회사에 적용한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독서를 하여야 하며, 그 독서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장해야 하고,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성장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는 무척 빠르게 가고 있다. 변화속도가 무섭다. 작년까지도 엄청난 이익을 냈던 국내 대기업이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올해 경쟁에서 뒤처지고 적자를 보게 됐다. 스마트폰이 나오는 가 싶더니 곧이어 아이패드, 갤럭시패드 같은 듣도 보지도 못한 괴물들이 나온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성인의 80%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위 Social Media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따라갈 것이다.

교회지도자가 이런 사회적 변화 속도를 이해하고, 이런 변화하는 사회문화 속에 있는 교인들의 Needs를 파악해야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영적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교회운영방식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세상은 저 만큼 가고 있는데 이제는 쫓아가지도 못한다면 세상과 더욱더 격리되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교인들을 놓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례로 아직도 상당수의 교회들이 재정 투명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회 밖 사회는 벌써 재정 투명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한지 이미 오래됐는데도 말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지도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먼저 교회지도자들이 성장해야 한다. 최근 대기업에서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코칭프로그램에 대교회 목회자들이 코칭을 받고 있는 점은 이런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 2. 사회와의 소통(커뮤니케이션) 시급

이번 조사 결과 한국교회 입장에서 억울한 점도 있었다. 신뢰도가 낮은 점은 인정하더라도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로 실제로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42.1%, 가톨릭교 39.3%로 가톨릭과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이 소위 '이미지 포지셔닝'이란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가톨릭이 더 신뢰도가 좋기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가톨릭이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소비자(국민)더러 잘 못 됐으니까 고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범 한국교회에서 조직적으로 대 사회, 대 언론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교회 또는 개신교인이 행한 말이나 행위가 충분히 뉴스가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언론사와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한해 동안 구제/봉사활동 한 내용을 종교별로 취재토록 하여 특집기사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공중파 또는 시청률 높은 케이블 보도 채널 등을 활용해 지금까지 방송해 보지 않았던 'Good news' 프로그램 개발하여 사회의 미담사례를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활동사항을 보도하는 예도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 또는 개신교인의 부정적 말이나 행위에 대해 보도자제 노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대부분 미디어 또는 주변사람들을 통해 접하게 된다. 최초 접하게 된 후 그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되며 누적적으로 가치관으로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디어를 어떻게 공략하고 다루는가가 한국교회 신뢰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교회 전체의 대 미디어 전략이 새로운 선교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3. 젊은 세대 영입**

최근 몇 년간 각 교회의 교회학교 학생수가 늘지 않고 있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이번 조사 역시 앞으로 한국교회를 끌고 갈 20대 젊은 층에서 한국교회 신뢰도가 가장 낮았으며, 과거 2~3년 대비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크게 걱정된다. 이는 앞으로 한국교회 인구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학생/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선교전략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젊은 층은 한국교회에 가장 관심이 적은 집단이고 가장 신뢰하지 않은 집단이다. 이들을 어떻게 우호적인 집단으로 변화시키고, 어떻게 교회 안으로 유입시킬 것인가 향후 한국교회의 큰 과제일 것이고,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 성패가 걸린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 2010 기윤실사역열매신뢰나무

2010 기윤실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후원교회, 회원님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시작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우창록(법무법인 울촌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 강영안(서강대 철학과 교수), 박은조(분당샘물교회 담임목사), 백종국(경상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이동원(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와문화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일정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뢰받는 교회 & 사회"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문의\_ 02-794-6200 / 후원계좌\_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여정

## 기윤실 2011년 사역 후원 기도편지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한 해 기윤실 사역은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후원해 주신 동역교회의 배려에 힘입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도 기윤실 사역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생각하며,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 도 제 목

1. 기윤실 운동이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기초로 우리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기독교윤리실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우리사회의 도덕불감증은 여러 수치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한국은 일본보다 무고는 540배, 위증은 430배 높다. '세계가치조사'에서 측정한 우리나라의 주관적 행복순위는 조사대상 96개국 중 60위이다). 기윤실이 다양한 정적 윤리운동을 통해 우리사회의 윤리적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기윤실이 2008년부터 조사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2010년 조사결과 17.6%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 기윤실의 교회사회적책임운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더 이상 교회만을 위한 조직이 아닌 지역사회를 보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복음주의권 기독시민운동을 시작한 기윤실이 다원화되고, 상대화된 시대 가운데 기독시민운동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직면하는 갖가지 사회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견해와 대안을 제시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여전히 기윤실 운동은 유효한가”라는 물음 앞에 겸손하게 단체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모든 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From Me의 정신으로 기윤실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10년 12월 13일

이사장 **우창록**

공동대표 **강영안 박은조 백종국 이동원 임성빈 주광순**



Recycled Paper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양코르지, 그린라이트)**로 만들었습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trusti.kr](http://www.trusti.kr)